朝鮮日報

八日夕刊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illegible]元

時評

混沌한 獨逸政界

×

內憂外患에 머리를 앓는 나라로 東亞에 中國과 歐洲에 獨逸은 좋은 對照라 할 것이다

互額의 賠償金의 支拂督促, 게는 撤兵問題에 煩悶 佛獨交涉의 起伏하는 波瀾가운데 또다시 停頓狀態等의 重重疊疊한 外患이 서로 斷續하는 가운데 맑스內閣이 總辭職을 한 後 國粹黨의 組閣을 疾惡하야 『스트레제만』의 出馬를 傳하더니 그亦 流産이 되고 다시 맑스氏에게로 不得已 時局收拾의 大命이 나리엇스나 依然히 混沌困難을 傳할 뿐이오 收拾의 曙光이 보이지 아니하야 그 內政의 不安이 자못 其極에 達한 것이 事實이다

現下 獨逸의 政界는 革命의 餘波 敗戰의 傷痍로 말미아마 不安 混沌한 社會相의 反映 그대로이다 左翼 準左翼인 社會民主黨 對 極右의 國權黨間에 勢力을 互角하는 關係에 잇스나 兩黨이 다 單獨으로서 政局을 左右할 만한 數를 占領하지 못하는 同時에 그 中間의 資本家黨인 人民黨이나 知識階級의 中心인 民主黨等의 勢力이 容易히 左右되기 어려운 狀態에 잇는 外에 獨逸의 政局은 容易히 混沌不安의 雰圍氣에서 버서날 曙光이 遙遠한가 한다 즉 다시 말하면 對外關係와 밋 國內의 事情이 엇더한 一轉機를 보고 그의 反映으로 政黨의 互角關係에 큰 變動이 잇기 前에는 到底히 免치 못할 現象일 것이다

日露會議는 緊張!

×

日露交涉은 七日에 傳하는 報道에 依하면 러시아側에서 새로히 撤兵及利權의 步合率에 對한 回訓도 잇섯는데 그 回訓의 內容은 從來의 그것에 比하야 一層讓步的이기 때문에 日本側의 主張하는 바와 또 매우 距離가 接近되야 會議의 進行은 前例에 업는 緊張味를 띄이고 進行中이라 한다

× 사카렌 撤兵問題에 對하야 러시아側의 從來 主張하든 바 『即時斷行』은 當季가 結氷期임으로 事實上 履行不可能이 되게 된 故로 러시아側의 讓步는 도로혀 無怪한 바이오 또한 利權問題에 至하야도 採掘能力이 자못 不活潑한 時期임으로 多少의 讓步的 態度를 示하야 一般原則的 協定을 定하라는 것도 得當한 바인가 한다

그러나 다만 問題는 撤兵、利權問題의 展開如何에 잇슬 터인데 이러한 問題에 對하야 러시아側의 胸算은 如何하며 日本側의 雅量은 如何한가 아즉 이에 對한 具體的 報道에 接치 못하엿슴으로 輕忽한 臆測을 避하고 이압흐로 局面展開에 注目을 不怠하려 한다

善後會議結局延期

人選問題의 內訌으로

(北京七日發) 善後會議는 一月中에 開催할 豫定이더니 西、南方面의 意思表示가 無하고 國民間에 一部 意見不一致된 點이 잇슴으로 人選問題에 內部의 不和를 生한지라 此로 因하야 二月下旬까지 延期하기로 決定하엿스며 또 會場은 邏國民會堂으로 決定하엿더라

孫氏病症은

肝臟潰瘍

(北京六日發) 孫文氏의 身病은 肝臟潰瘍으로 化膿한 部分은 切開를 要하게 되엿스나 衰弱이 甚하야 手術도 不能하고 間歇的으로 苦痛하는 中이라더라

金法問題

佛要求拒絶決定

(北京七日發) 金法問題에 關하야 李思浩氏는 從來 農商、敎育、財政及外交部四部會議에서 考究中이든 바 佛國의 要求를 拒絶하기로 決定하고 此旨를 兩三日中에 佛國代理公使에게 正式으로 通知할 豫定이 되엿다』고 말하더라

張作霖歸奉延期

裡面은 諸巨頭處分問題로 段執政의 懇請에 依함이라고

(奉天七日發) 張作霖氏는 六日 歸奉할 豫定으로 奉天에서는 歡迎準備를 하엿든 바 延期하게 되엇다 이에 對하야 當地에 到着한 電報에 依하면 張氏의 歸奉延期는 段祺瑞氏의 懇請으로 因함인데 目下 段氏가 憂慮함은 馮玉祥、胡景翼、孫岳處分問題인 바 馮、胡二人問題는 大綱解決하엿스나 다 못 問題는 孫岳인데 그는 保定에 根據를 得코자 하는 中이나 이미 李景林이 天津에 在한 以上에는 直隷省內에 二名을 配當할 수는 업다 此에 就하야 段氏는 張氏와 重復協議中인즉 適當한 解決策이 成立되면 張氏는 곳 歸奉한다 하며 또 五日 天津으로부터 臨奉한 顧問 松井大佐談에는 時局은 아즉 鎭定된 것이 아니다 樂觀할 수 업슴으로 張氏의 歸奉은 凱旋이라고 말할 수는 업스리라고 하더라

東北事宜任命

(北京七日發) 七日 執政令으로 外蒙者任命이 잇던 鎭威將軍 張作霖을 東北邊防督行事宜督辦에 任命한지라 東北地方官吏는 一齊히 其執政에 服할 것이라 發表하엿더라

土匪又復列車襲擊

人質四十名을 拉去

(廣東七日發) 粤漢鐵道沿線에서 六日에 混合列車가 土匪에게 襲擊한 바되야 全部 掠奪된 뒤에 四十名을 人質로 잡어갓다 이것은 一列車를 뒤켜 그 難을 免한 中國女優團一行을 人質을 삼으라고 目的한 것이더라

伊國高壓政策

大規模로 斷行

(羅馬七日發) 伊國政府는 二、三日 以來로 斷然히 高壓政策을 斷行하야 國內의 秩序를 維持하는 同時에 國憲尊重을 强制하라고 크게 努力한 것은 七日 發表된 內務大臣의 報告로 因하야 明白하다 卽 右報告에 依하면 集會所及俱樂部等이 官憲에게 閉鎖를 命한 바된 곳이 百餘이오 解散을 命한 바된 政治團體가 二十五、伊太利『리베라』團支部의 閉鎖된 것이 百十一、『카페』店의 閉鎖를 强制當한 것이 百五十餘處 그 위에 또 또 家宅搜索을 受한 것이 六百五十五軒의 多數에 達하엿더라

議會는 十二日에 再會

(羅馬七日發) 伊太利議會는 本月十二日에 再開되야 政府提出인 選擧法改正案을 上提討議할 豫定이라더라

米領海制限擴張

聯邦裁判所의 判決

(桑港六日發) 米國聯邦裁判所는 米英條約으로 定한 領海十二哩制限을 超過한 境遇라할지라도 만일 船舶의 港口로부터 一時間以內에 航行할 수 잇는 範圍內에 잇는 境遇에는 酒類를 搭載하고 密輸入하는 外國船을 逮捕할 수 잇다는 判決을 下하엿다

賠償會參加要求에

米國官邊의 憤慨

(華盛頓七日發) 米國官邊은 聯合國側의 巴里方面으로부터 賠償會議에 米國의 參加를 請하라고 態度를 決定함에 對하야 憤慨하는 中이다 大蓋 米國이 代表에게 與한 債務問題를 討議하지 말라는 訓令은 從來와 共히 今番會議에도 適用되야 米國行政部及其代表者는 戰時債務의 一括的 減額件을 討議할 權能이 업다고 聲明하엿더라

阿片協定又復決裂

米國側의 猛烈反對

(東京電) 昨年十一月부터『제네바』에 開會한 國際阿片會議는 豫想과 가티 幾多의 紛糾를 거듭하엿는데 結局 阿片專賣制度問題、常飮者에 對한 登錄制度의 採用等 決定案을 得하야 겨우 一段落을 告하엿더니 調印할 際에 米國의 猛烈한 反對로써 協定도 粉碎되야 阿片會議는 다시 고처하게 된 醜態를 보히게 되야 今後 會議에 波瀾이 일어날 듯하더라

獨、波經濟協約

伯林에서 開始

(『나웬』無電八日發帝通經由) 波蘭獨逸間의 經濟協約締結交涉은 六日 伯林獨逸外務省에서 開始되엇더라

米郵便現業員

增俸拒否權是認

(華盛頓六日發) 米國上院은 二十九票對五十五票의 多數로써 郵便現業員增俸案에 關한 大統領『쿨리지』氏의 拒否權行使를 是認하엿더라

三國代表會見

財政會議前에

(巴里七日發) 聯合國財政會議에 出席하기 爲하야 英國藏相 耳義首相『쳐-스』氏와도 會見하고 來三月『뻐랏셀』에서 開催할 聯合國際無線會議에 就하야 氏의 意見을 聽取하리라더라

蘇士運河

通過料金低減

(倫敦六日發) 來四月一日부터 蘇士運河의 通過料金을 每一噸에 就하야 二十五參만을 減價하기로 決定하엿다는 것이 六日에 發表되엿더라(備考) 蘇士運河의 現行通過料金은 一千九百二十五年三月一日에 改正할 것으로 每一噸七法二十五參이더라

英埃交涉

近近協定成立

(카이로六日發) 英國의 要求인『제지라』灌漑事業擴張問題及埃及『스단』間『나일』河의 分配問題에 關하야 미리 埃及政府와 埃及駐剳英國最高委員間에 交涉이 進行中이더니 近者에 雙方의 意見이 一致되야 未久에 協定이 成立하게 될 듯하며 또 前首相『자글파사』氏를 首領으로 삼는 것으로『쓰부드』黨員의 大多數는 公然히 埃及의 共和制를 主張한다는 理由로 最近 脫黨하는 者가 增加하는 中이더라

普國聯合內閣龜裂

人民黨出身의 閣僚의 反對로

(『나웬』無電八日發帝通經由) 普魯西政府에 轉閣의 危機가 臨迫하야 首相『부라신』氏는 總辭職할 理由가 업슴을 聲明中임에도 不拘하고 人民黨出身閣僚는 極力으로 首相에게 反對하야 藏相『폰리히텔』、文相『베리쓰』博士는 辭職하엿다 그리하야 普魯西의 聯立內閣은 大龜裂을 生함에 至하엿더라

聯合內閣組織被命

超然組閣에 失敗한『맑스』氏

(伯林七日發) 獨逸國務總理『맑스』氏는 非政黨的內閣組織도 亦 不成功하얏다 함을 大統領『에벨트』氏에게 通告하엿다 玆에 大統領은『맑스』氏에게 中央黨民主黨의 聯合內閣의 組織을 命하엿더라

佛、獨關稅戰開始

(쌜드無線六日發) 『마탄』紙의 報道에 依하면 獨逸은 一月十日을 期하야 佛國에 對하야 實質的 關稅戰을 開한다더라

獨逸에 第二通牒

聯合國大使會議에서

(쌜드無電六日發) 聯合國大使會議는『케른』撤退에 關한 對獨通牒에서 爲先『케른』地方占領停止는 一部分식 漸次로 行할 것을 規定한『벨사이유』條約의 條件을 摘示하고 且 聯合國政府는 獨逸이 部分的 撤退條項에 依하야 利益을 容許할 條件을 今日까지 履行할 意思가 업는 證據를 保留할 旨를 宣言하엿다 또 本問題에 關하야 大使會議는 獨逸政府에 對하야 第二通牒을 送하리라고 豫想되더라

商用飛行船建設權

獨逸에 附與하자는 決議案

(東京電) 米國議員『코페라』氏는 下院에 一決議案을 提出하얏는대 右는 獨逸에 商業上目的으로『쳐페린』飛行船을 建設할 權限을 與할 事를 聯合國大使會議에 米國代表에게 訓令한 事를 大統領『쿨리지』氏에게 懇請한 것이더라

마케도니아 自治共有要求

(『나웬』無電八日發帝通經由) 現在 歐洲諸國에 留學中인『마케도니아』學生은 獨逸에서 大會를 開하고『마케도니아』地方이 國際聯盟保護下에 屬하고 自治를 共有할 事를 要求하엿더라

航空交通問題로 獨逸에 新公文書

(『나웬』無電八日發帝通經由) 巴里에 在한 聯合國大使會議는 國際航空交通規定에 關하야 新公文을 獨逸政府에 送附할 터인데 右는 一九一九年에 創立한 國際航空會議에 獨逸의 參加를 勸誘코자 함이더라

布哇聯邦檢事

파손氏指名

(華盛頓六日發) 『오하요』州出身인『파-손』氏는 布哇駐在聯邦檢事로 指名되엇더라

日露會議

諸問題로 激論

(北京七日發) 七日의 日露會議는 撤兵問題와 利權問題에 關하야 激論이 잇서 一致되지 못하고 雙方이 請訓을 本國으로 請하기로 하고 十八日에 重要問題를 討議할 터이더라

決裂危機一掃

(北京七日發) 日露交涉은 七日에도 午後四時부터 續行되엿다 露國側으로부터 撤兵及利權步合率에 就하야 回訓도 到着하엿는데 此回訓은 從前보다도 一層讓步的인 것인즉 日本의 主張과 相違가 그리 크지 안케 되야 兩代表에게도 緊張의 度를 加하게 되엿다 芳澤側의 말에 依하면 會議의 空氣는 過去에서 볼 수 업슬만큼 良好하야 決裂될 危機는 一掃되엿더라

片上紳氏被逐

長期滯在拒絶

(莫斯科六日發) 露國文學을 研究키 爲하야 昨夏 來莫斯科에 滯在中이던 片上紳氏는 今回 露國官憲으로부터 日露間에 正式關係가 업슴을 理由로 此以上 長期에 亘한 滯在를 拒絶하엿슴으로 二三年間 滯在하야 研究할 豫定을 變更하야 一旦『리가』로 와서 同地에서 數個月間 材料를 整理하야 가지고 夏間에는 歸國할 豫定이라더라

貴族院의 權限을 縮少하는 非憲法的이라 豫算에 關係잇는 法案이 議員에게서 提案된 前例는 如何튼지 잇다 尾崎氏의 小學校敎員俸給補助法案、床次氏의 蠶業組合中央金庫法案其他에도 多數가 잇다 하엿더라

普選調査

第二回委員會

(東京電) 普選案에 關한 第二回樞密院審查委員會는 七日午後一時부터 開會하고 濱口藏相、若槻內相과 各委員間에 여러 가지 問答이 잇섯스며 또 普選案과 關係잇는 義務敎育延長問題에 就하야 當日에 特히 出席한 岡田文相과 各委員間에 質問應答을 거듭하고 四時에 散會하엿더라

質問應答

(東京電) 普選案에 關한 七日樞府의 審查委員會와 國民敎育과의 關係에 對하야 質疑應答을 거듭하야 質問未了된 그대로 八日도 開會하기로 하고 五時頃에 散會하엿다 然而 質問은 多部分을 江木翰長이 하엿는바 매우 深刻한 것으로 그 要領은 左와 如하더라

爲先 若槻內相에게 對하야 普選案實施는 現在의 國民敎育程度로써 充足하다는 確信이 잇느냐

岡田文相에게 對하야 國民敎育이 不足하다고는 認定치 안는다 그러나 自今 繼續하야 國民敎育의 向上을 企圖할 方針이다 라 答하고 다음에 岡田文相에게 對하야 義務敎育年限을 延長할 必要는 多年의 輿論이다 特히 普通選擧實施에 際하야 一層 그 必要를 느끼느냐 라 質問함에 對하야 文相은 義務敎育年限延長에는 同感이나 財源이 업슴으로 遺憾이지만 實現할 수 업다 그러나 義務敎育年限延長과 普通選擧와는 別個問題로 생각하라고 한다 라고 答하엿더라

埃及軍備

擴張是認

(『나웬』無電八日發帝通經由) 埃及政府는 步兵二個大隊를 擴張하라고 右增員에 要할 費用支出을 認可하엿더라

義務敎費問題에

本黨聲明書發表

(東京電) 政友本黨에서는 本黨이 議會에 提案한 義務敎育費增額案이 憲法違反이라는 議論에 對하야 七日 臨時幹部會를 開하고 左의 意味로 聲明書를 發表하엿더라 議會는 憲法上 天皇의 大權事項을 除한 外에는 法律案提出은 自由이라 憲法違反이라 云爲함은 도리혀

今年의 世界

伊國小觀 (一)

民世學人

近着하는 外電은 연방『이탈리』의 政局의 動搖를 報하며『뭇소리니』首相의 豪語한 바 四十八時間內에 政局을 安定케 하겟다는 것도 벌서 지난 五日로써 期限이 넘어갓스되 아즉 아모 結着이 업는 모양이오 이제 司法、文部、土木의 三相을 免職하고 각각 新任者의 就任을 보게 되엿다 하거니와 客冬에는『와리발디』將軍의『뭇소리니』氏에게 對한 格鬪의 請求가 잇서 적지 안케 그 政界의 衝動을 주엇섯고 이번에는 또 北部『이탈리』一帶에서 勃發한

反國粹黨의 示威

運動은 惡政者『뭇소리니』를 打罵하고 國粹黨의 軍國主義를 打破하라고 부르지즈며『레닌』의 萬歲、『쏘비에트』萬歲를 絶叫하야 자못 革命의 氣勢를 녹엿다 하니『이탈리』의 現下의 國情은 비록 世界的 大波動을 미츨 處地는 아니되나 改造途程에 잇는 列國民의 事態에 올어 보아 또한 吾人의 一重要한 觀照를 要할 바이다『이탈리』는 南國이다 南國의 사람은 情熱的 氣分이 한상 濃厚하다 北國人은 理性的이며 打算的이오 南國人은 感情的이며 信仰的이라 하면 一律로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人文의 實際로 보아서 그다지 虛妄한 말은 안일 것이다 宗敎의 見地로 본다 할지라도 北歐의 國民들은 만히 自由의 傾向이 잇는 新敎를 信仰하고 南歐의 國民들은 만히 專制의 色彩가 잇는 舊敎에 歸依한다

感情的인 南國人

은 反撥的의 破碎가 아니면 盲目的 歸服을 즐기는 氣質이 잇다고 할 것이다 自己發展의 本能과 自己貶下의 本能을 엇더한 個人이나 國民에도 그의 並存한 事實을 發見하겟지마는 南國人의 氣質은 더욱 이 兩極사이에 奔放하기 쉬운 感情的 天分을 만히 가즌 것이다 一九一八年 秋期로부터『항가리』의『베라、쿠운』과『바이에른』의『아이스넬』等이 모다『쏘비에트』共和政治를 宣佈하고『모스코』의 第三『인터나쇼날』의 信條를 實施하게 되매 戰後의 缺乏한 物資와 產業의 萎靡와 貧窮이 極度에 達하야 生活이 極度로 威脅된『이탈리』多數의 勞働者는 熱情的인 一氣呵成의 天分으로 그의 夢想的인 가장 急進的인 制度로 轉換하야 이의 舊勢力의 破壞를 斷行코저 하엿섯다『에마누엘』皇帝의 地位 밋 그 皇太子의 運命外지도 一時 자못『로마노푸』家의 覆轍을 밟는가고 疑懼할 만큼 그

赤色革命의 氣勢

는 매우 天下의 耳目을 놀래든 바이다 이제 當時의 事情을 冗長하게 陳說할 必要는 업거니와『뭇소리니』氏의 出現直前의 形勢를 敍述한 文字를 보면 그 一斑을 回想할 수 잇다『볼세비즘』의 宣傳은 확실히 人心에 添滲하엿다 階級과 階級과는 憎惡心의 衝動으로 抗爭하엿다 勞働者는 卑劣한 資本家를 富케하려는 勞働을 拒絶하고 農夫는 그의 膏血을 빨어내는 地主를 살지게 하는 이보담은 차라리 그 收穫物을 썩히게 하엿고 美裝한 者는 行路人의 嘲笑를 밧고 國旗에 敬禮함은 이는 國粹黨이 할 일이 되엇다고 이는 國粹黨의 稱讚할 바이라 勿論 그대로 準信할 바 아니나 外當時 狀態와 갓흔『이탈리』의 革命的 騷亂은 確實히 平時에 想像할 수 업는 混亂狀態에 빠저 잇든 것이다 그러나『이탈리』人은 어데外지든지 感情的인 南國人 氣分을 버서나지 못하엿다『뭇소리니』의『파쓰시티』(國粹黨)들은 다시 突破 間에 極端으로부터 極端으로의 逆轉하는 新政局을 形成하엿다『뭇』氏를 중심으로 하는『그는 겨우 三個日間에『이탈리』人의 精神을 一變하엿다』고 一卽『볼세비즘』의 革命이 成就될 것을 밋고 決코 그 對抗할 意思도 품지 안는 四千萬의 그의 國民들은 一變時에 다시 反動的

國家主義에 還元

하엿다고 한다 그의 急速한 變遷은 놀란 만하지 아니한가? 當時 資本家이나 勞働者는 모다 特權이 업고 相對하야 正義가 잇슬 뿐이다 財産과 債務의 契約은 神聖한 것이며 吾人을 救濟하는 것은 오즉 勤勉이다 各人은 勞働의 權利는 잇스되 國家의 利益에 反하야 同盟罷業의 權利는 업다고 斷言하며 社會는 義務에 그 根柢를 둔 것이오 權利에 根柢를 둔 것이 아니다 오즉 犧牲이 歷史를 進展케 하는 것이라고 絶叫하엿다 그리고 그는 國民의 多數가 議會를 玩具와 가티 보고 잇슴을 理由로써 그의 權威를 貶下하야『데모크라시』의 다음에 오는 超『데모크라시』를 呼號하고

君主政治와 軍隊

의 意義를 贊揚하엿다 吾人은 이제『뭇소리니』의『파쓰시티』에 對하야 冗長한 論評을 保留한다 그는 識者의 判斷이 自明한 것인 外닭이다 그러나『포랑쓰』의『액숀、푸랑세쓰』『떠이취』의『올겔슈』와 米合衆國의『아메리카、리존』과 함께 戰後의 發生한 列國의 反動團은 그 一消一長의 關係가 자못 應接할 수 업는 바 잇다 昨一年間의『파쓰시티』의『이탈리』의 重要政事를 一瞥하건대 一九二三年十二月十日 勅令으로 斷然히 上下兩院의 停會를 發表하엿든 뒤를 이어『뭇』氏는 所謂『國民의 信任이 업는 議會로부터 全權을 맛는 것은 탐탁지 못한 일이라』고 因하야 國會를 解散하고 改定한 바 全國比例投票의 選擧法에 依하야 總選擧를 斷行한 結果 五三五人의 定員인 國會에 三九三人의 絶大多數인 御用黨을 把握하야

依然한 獨裁政治

의 實權을 가젓섯고 그의 外政의 方面에서는 二月七日 通商航空條約 밋 附屬議定書의 調印과 함게『맥도날드』氏의『잉글리』政府의 뒤를 쪼처『러시아』의 承認을 斷行하야 南『러시아』의 穀物로써 그 不足한 物資를 補充케 하엿스며 그보다 먼저 一月二十七日에는『유고쓸라부』國과『퓨메』問題를 비롯하야 年來의 係爭關係를 解決하는 修交條約을 調印하고 同六月五日에는『칙슬로박』으로 더불어 親善條約을 締結하야『오스트리、항가리、블가리아』等 戰時의 敵國에 對한 一種의 同盟을 形成하엿고 九月十九日에는『스위쓰』와 一切의 紛爭을 常設仲裁裁判에 附한다는 仲裁條約을 締結하야 接隣列國에 對한 修交와 밋 對應策이 자못 遺漏가 업섯든 바이다 그러나 이제 動搖되는 政局 밋 그 歸趨는 과연 어떠할는지?

鐵筆寫眞

—(投稿歡迎)—

新年의 奇怪한 現狀(離婚訴訟의 激增)

憲、本合同運動

政局打開의 新機軸으로 相當히 刮目할 일

(東京電) 最近 政界의 策士는 從來의 政本合同은 實際上 不可能하나 寧히 憲政會와 本黨과의 合同이 可能하다하야 牧野宮相과 加藤首相과 關係上 憲本合同이 可하다고 薩派策士等은 憲本提携를 目標로 進運動을 開始하얏는데 政局打開運動의 新機軸으로 相當히 刮目할 일이더라

官吏初任俸給

低減實現?

(東京電) 官吏의 初任俸給平均額을 低減할 것은 今回의 行政整理와 關連하야 昨年來 次官會議에서 宿題가 되야 決定치는 못하엿스나 八日의 初次次官會議에서 更히 協議決定하야 境遇에 依하야는 官制의 改正을 行하게 될는지 또 未知이라더라

治安維持法

原案修正決定

(東京電) 旣報와 如히 今議會에 提出할 治安維持法은 七日午前十一時부터 法令審查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司法省原案第一條 朝憲紊亂字句는 中傷的으로 解釋上 疑義를 生케 할 危懼가 잇슴으로 因하야 國體를 變改又는 議會組織을 變改코자 하는 目的으로 함이라 云함과 如히 具體的 字句로 修正하기로 決定하엿다 右修正案은 八日 法制局에 廻附할 터인대 本案을 議會에 提出함에 司法省으로부터 刑法의 特別法으로 할가 又는 內務省으로부터 治安警察法의 追加法案으로 할 外는 法制局의 決定에 待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佐、青海底電은

今後外電으로 取扱

(東京電) 遞信省發表에 依하면 來二月一日以後 佐世保、青島間 海底線經由電報는 外國電報로 取扱하게 되엿다 따러서 省令으로서 關係法規의 改正을 加하게 된 바 改正要點은 如左하더라

佐世保、青島線經由電報는 一般國際電報及日本과 中國 青島及桑港間의 和文電報는 本文七字를 一語로 料金은 青島桑港에 普通四拾錢、新聞報는 拾七錢、其他 中國內地에 普通五拾錢、新聞報 貳拾錢

(料金은 一語에 對하야)

第二各派聯盟

普天敎徒參加

昨春 世間에서 親日團體로 指目되든 十一團體中의 四十餘人이 各派有志聯盟이라는 것을 組織하야 世上의 物議를 招하얏든 바 其後 此聯盟은 其趣旨가 世의 共鳴을 엇지 못하고 兼하야 財政의 窮乏으로 아모 活動도 보지 못하얏더니 最近에 各派有志聯盟에 加名한 四十餘人中 十餘人과 普天敎主車京錫部下의 十餘人이 中心이 되고 其外의 參加者를 合하야 發起者 六十九人의 名義로『時局大同團』이라는 것을 創設한다고 去六日付로 趣旨書와 內鮮人의 精神的 結合을 標榜함 大同團結하야 文化의 向上을 期함 等의 綱領을 發表하고 八日午後 旭町日本料理店 白水에서 發會式을 擧行하고 繼續하야 地方遊說를 行한다는데 此團體의 發起된 動機와 內幕은 如何한 것인지 世에 傳하는 바로는

普天敎를 加한 第二各派有志聯盟이다

從來 一種의 疑問으로 注目되든 普天敎가 今番에『親日』로 態度를 明白히 한 것이다

有志聯盟의 一派가 普天敎派의 金錢을 利用하려는 計劃으로부터 出産된 것이다

等의 風說이 잇는데 何如間 發表된 趣旨書로 보아『時局大同團』이라는 것은 普天敎와『유토피아』로 敎徒를 誘引하는 所謂『大時國』과 相似한 것과 趣旨書中에『普天下民衆』이라는 文句를 使用한 것과 發起人의 署名한 末尾에『外百萬人』等의 文字를 使用하야 所謂『日鮮融和』를 標榜한 것을 보면 各派有志聯盟이 主이든지 普天敎가 主이든지 兩派의 聯合이든지 此는 何如間에 第二의 各派有志聯盟이오 第三의 一進會로 世上에 注目되며 此團體의 今後의 行動如何를 依하야는 社會의 物議를 招할는지도 難測이라더라

東拓移民決定

前年보다도 만하

東拓 第十五回 移民은 客臘에 決定되엿는데 三月末日外지는 來住할 터인데 承認이 九十五戶로 前年의 九十三戶에 比하면 二戶 增이며 他에 八戶의 收容殘地가 無하기 때문에 希望地를 照會中인 것이 有하다 그런데 前年 三月末日外지의 來住實數는 六十四戶이엇스나 本年은 幾分 多數되리라하며 今般의 處理內容은 次와 如하더라

各支店別割當

	承認	未決
京城	二二	一
大田	八	—
裡里	一二	—
木浦	一三	一
大邱	六	四
釜山	一六	一
沙里院	一七	—
元山	二	一
計	九五	八

朝銀券印刷實施

內閣印刷局에서

(東京電) 朝鮮銀行券은 總督府印刷所의 廢止로 因하야 日本에서 印刷하기로 하엿는데 旣히 印貯한 것이 多數이엇든 故로 大正十二、三兩年은 印刷를 하지 안하지마는 現在는 殘高券이 總額 約二億五千萬圓에 減少되엿슴으로서 今年度부터는 內閣印刷局에서 印刷하게 되야 朝鮮銀行에서는 主任 池川信俊氏가 渡東하야 印刷並現送問題等에 關하야 目下 協議中이며 印刷費는 從來 一個年 約五十萬圓을 要하엿지마는 今後는 幾分 低廉하게 될 터이라더라

種牛檢查區域擴張

客年六月三日 京畿道令 第二二號로써 種牡牛檢查區域을 指定하엿슨데 今般 更히 廣州郡外 十四郡의 三十一個面을 追加하야 現在 百八十七個面이 되엿슴으로 總面積에 對한 約七割五分을 占하게 되엿더라

朝鐵社債募集在近

朝鮮鐵道社債 五百萬圓은 早速 募集할 豫定으로 銀行과 交涉中인데 年八朱이면 直히 實行할 豫定이더라

人事消息

▲金璟載氏(黃州義德學校長) 日昨 入京 平壤旅館에

▲渡邊定一郎氏(商議會頭) 十五日 歸京豫定

▲井內 勇氏(朝銀理事) 渡東中이든 바 九日午前七時四十五分 歸任豫定

▲愼九範氏(本社專務理事) 八日 夕發 高敞鄕第에

▲曺學鉉氏(本社常務理事) 同 上發 全南方面出張

八面鋒

第二軍縮會議가、開催될 듯하다 낫가、各國政府에서는、補助艦의 隻數부터、서로『에누리』廣告를 한다、그 着眼은 政治나 國防外지、營業으로 아는 外닭

○

살진몸 말하셔、못더라고、東京日比谷座가、떠들석하여오니가、朝鮮에서도、무엇이、귀동대동하는 모양이다

○

天구경갓다가 추는총、제산으로나 추자

月刊 詩 雜誌

읽으라! 숨겨잇는 血潮의 結晶이 詩的 昂奮된 朝鮮 初有의『팜플렛트』雜誌를……

—◇重要目次◇—

一週年紀念에 臨하야
漂浪의 行路
星
비엇지 가을은 차자왓드냐
虛無
漁夫
故鄕

創刊一週年紀念號

서리온날아츰
落葉지는 늣진 가을
가을
相對
外數篇·譯詩等

六十頁美本·特價

京城府昌信洞
發行所
發賣所

▲勿失此期하시요?

今般 本商會에서 純毛織、外套用、周衣次、四百件과 ᄯᅥ布(담요)三百件과 防寒구쓰-四百足을 現時勢에 大大的 廉價로 파러버리오니 此機를 勿失하시고 品絶되기 前에 速速 注文하시압 西伯利亞에서 露西亞人이 가지고 왓다가 本商會에 委託하여 되는 바로 放賣하야 가지고 歸國하려 하압기 如此 廉價로 放賣하오니 速速 注文하시압 아시는 바와 如히 西伯利亞에는 毛物이 多數 所産되며 極히 寒帶地方이라 純毛로、더욱고、개벼우며 튼튼하게 東洋에서는 보지도 못하든 物品이오며 周衣를 日餘圓을 들이여 毛衣를 해입는 것보다、싸고、모양잇스며、더우며 튼튼하고 담요는 깔고 안즈면 全身이 다 못치게 푸군푸군한 것은 두어라 말할 수 업스며 防寒구쓰는 말할 수 업는 寒帶地方에 製品이라 外部에、혈흘대며、모양잇고 튼튼하며 洋服이나 朝鮮衣服에、신으면 참 조흠니다 請求時에 발見樣을 해 보내시고 以上 物品을 請求時에 郵料並加算하여 先金으로 請求하시요

▲周衣次、外套用(一件) 拾貳圓(郵料六十錢)
▲毛布(담요)一個 貳拾六圓(同 七十錢)
▲防寒구쓰一足 五圓(同 四十錢)

京城府紅把洞一百五十二番地ノ四
콘지넨트商會

毒藥잿물을버서나 우리新製品잿물

應用 植物

東海星소-다

容易 特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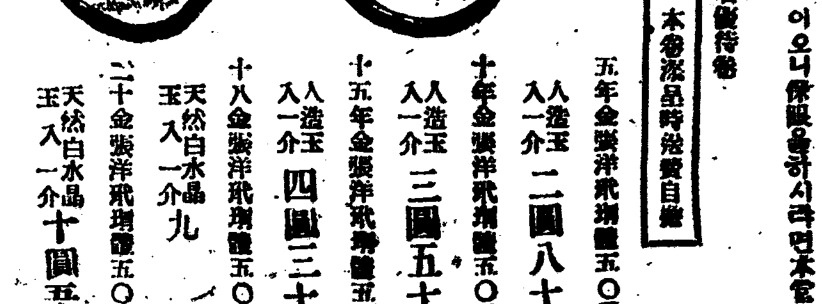
嚴冬은室內에서經便
經濟理想的의洗濯이

無保證金一郡一人限特約設置를希望則
三錢切手封入規則書送申込次第

京城府勸農洞一○七
製造本部 東海星社 電話光一二○七

陰年末大賣出

◎身體에 最重한 保眼이 第一이오니 保眼을 하시랴면 本堂으로 下命하시옵



讀者優待券
本券添呈時發賣自後

五年金張洋飛琊鏡五○番 人造玉入一介 二圓八十錢
十年金張洋飛琊鏡五○番 人造玉入一介 三圓五十錢
十五年金張洋飛琊鏡五○番 人造玉入一介 四圓三十錢
十八金張洋飛琊鏡五○番 天然白水晶玉入一介 九圓
二十金張洋飛琊鏡五○番 天然白水晶玉入一介 十圓五十錢

各種眼鏡 專門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八十三番地
文明堂

妻子를賣食!

경상남도북도와전라북도의 기한에우는륙칠만명의동포 救濟策은姑無成案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와전라북도(全羅北道)세도는작년의심한긔근으로 그동안거의 사경에빠저서 참아보기어려운 참상을이루어오든중 최근혹독한 치위에더욱 견디지못하야 혹은처자를팔어서 양식을구하는등 참으로말하기어려운 참상이 극도에 이르럿다는데 네개그와가튼참경에 빠진사람이 약륙칠만명가량이라는바 당국에서 그구제책을강구중이나 총독부 예산이의회(議會)에서통과될때까지는더욱더욱심할모양이라더라

財政緊縮의餘波로 威脅되는敎員生活

승급의길이막히게되얏다고 경성부당국에교원들의요구

총독부에서 재정을 긴축하는새방침을조차 경성부에서도 십사년도예산은 예년보다 약이할가량이나 삭감하게되얏슴으로 십사년도에는 긴급한 사업외에는 전부예산을 깍기로된것인데 이를따라 총독부에서 보조하든 시내각학교의 보조금도 삭감되는비경에빠저 하는수업시「학교조합」과『학교평의회』에서 관리하든 일본인중학과 소학교이며 조선인 보통학교교원에게는 매년두번식 올려주든 월급을 상당히 올려주지를 못하게되얏다 뜻밧게 승급의길이 막힌교원간에서는 불평이 이러나월급을올려주지 못하겟거든 가봉을 주라고 본봉이나올려달라는 요구가 경성부당국자에게 데출되얏다는데이에대하야황내(荒內)경성부 학무계주임은말하되『본시교원의 월급을올려주는 뎡도는다른관리와 달라 매우량호한것이니 요사히가티 비상한긴축을 단행하는때에는 역시좀참고지내는것이 온당할줄로 압니다금번에도 월급을 아주아니올려준것도아니요 례년보다 좀경하얏슬뿐인데 그가튼불평은 잇슬듯도하지 안슴니다』하더라

北監理補助減額은 世界大戰의影響!

언제든지현상대로는아니라고 남북으로분주하든「노불」씨말

미국디감리교회 선교부(米國美監理敎會宣敎部)에서 금년부터조선에 보조하든경비를사할(四割)을 감소한다함은 이미두보한바이며 이로인하야 생기는여러가지 영향중에 교육계에미치는영향이 가장크다는것도 본보에상보한바이어니와 이제

정초부터

남으로 수원(水原)의 출장을 마치고천식을이기가며 즉시북으로녕변(寧邊)에 출장하야그곳의숭덕학교(崇德)에대한선후책을강구하고도라온『노불』박사의말을듯건데『이번에보조비의사할를 감소함은참으로미안한일이며더욱이조선을자긔의 나라와가티알고 후반생애(後半生涯)를조선에바친자긔로서는 이보다도 더큰미안이업슬줄안다 그단행을 일월부터하게된는 사실이며 이원인에대하야 말하면멀리구주전쟁(歐洲戰爭)의영향을 바든것이그동안차이고 쌋이어 미국의

선교비가

예상대로거처지를아니하얏슴으로 이것이 발서부터 실현되얏슬것이나 그동안수입은 줄고지출은 보조비는전대로하야 왓슴으로결국수백만원의 부채를젓다 그럼으로 부득이 단행한모양이나 이것이영구하게 이와가티 감소된그대로계속되지는 안을듯하며 더욱히조선을위하야『웬취』전독은방금미국에데재하야속히회복(恢復)되기를 운동중이다그럼으로 엇더한선후책이 잇슬런이라』고말하더라

個人補助라도 힘써하겟다고

그라고중등학교도녕변(寧邊)숭덕학교(崇德學校)를 비롯하야 구십륙처의 소학교 보조비중지에대하야압흐로유지방침이며기타의 영향을드러 박사는말하되『구십칠교중에 중등뎡도학교인 녕변숭덕학교는일만육천여원의 공비를드려작년십일월에 훌륭하게교사(校舍)를 준공 하얏슴도 불구하고건현남보듯이 보조를중지할수는업다 그럼으로금년부터 보조비를중지하얏슨사실이나조선에잇는선교사(宣敎師)들이 개인의처디로 유지에절로 변함이업게할방칩니다 그라고 구십륙처의소학교가 보조비를 중지함으로유지를 못하게된다면 참으로학교그자톄를보아 한심할일이다만일사실보 이러한 학교가잇다면 이것은극력으로 됴사를하야한곳도 유지에문뎨가 업게할방침이라고』말하더라

教育부터獨立하자

배재학당은재단법인계획

◇培材教務主任 姜邁氏談

이번보조비감소에대하야 배재(培材)고등보통학교교무주임강매(姜邁)씨는말하되『이런일이언제든지 잇기는 잇서야할것이요 뜻잇지안어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럼으로 배재학당반하드라도 솔선하야 유력한 학부형(父兄)이며 독지가의힘에호소하야 약이십만원의 재원을어든후에는재단법인(財團法人)을세우라고하야 계획을하얏스나 아즉그실현을 보지못하얏다 그러나압흐로는이것이되어야할것이며 이와가티교육긔관(教育機關)만은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긔관인즉독립(獨立)이필요가절실히잇다그러나 너무도 보조비중지가 돌연뎍(突然的)임으로 령향만흘하는학교도 업지안을가한다 귀어도이와가튼 중대한문뎨는 얼마전부터 무슨내용이라도 잇서야할것이 나흘가한다 엇지하얏든지 이러한긔회를리용하야 교육긔관만은 독립하여야 할것이라고하며 또교회도그보조비라는것은 결국서양선교사의 봉급에지나지 못하며 대개는그교도(教徒)의자급제(自給制)로유지하는터인즉 머지안어 교회도독립하여야 될것이라』고말하더라

技競運動

鮮滿大會에 選手派遣 平壤氷上競技

來十七日大同江에서

平壤靑年會主催의第一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는來十七日에平壤大同江에서開催할터인바主催側은大會準備中이며參加選手는練習에猛烈할터인大會當日의얼마나盛況일것을豫期할수잇다는데 主催側에서는지난六日午後七時에競技委員會를열고同大會에서選手權을獲得한選手는旅費其他費用을負擔하야鴨綠江에서열리는鮮滿氷上選手權大會에派遣하기로決議되얏다하며大會의綱領、規定及其他注意事項은如下

◇綱領 本大會는氷上競技를獎勵함으로目的함
本大會는年中行事로每年一月中에大同江에서開함
本大會는各競技者에게資格限이有함
本大會는平壤靑年會體育部에서規定한氷上競技規則에依하야競技를行함

◇規定 審判은審判長의監督을受하야各該當審判員이此를行함(但)審判에疑議가生할時에는審判長이此를決定함
審判長의決定은最終임으로異議함을不得함
本大會에選手權을得한者는鮮滿氷上大會에派遣함

◇注意事項 選手는大正十四年一月十七日午前九時半에大同江上에集合하야大會部員指導下에入場式을擧行하고卽時競技를開始함
選手는招集員의招集에依하야定圈內에入함을得함

◇委員 大會會長 鄭斗鉉 ▲總務柳英烈▲審判長金鼎七▲審判員李丙三•李錫贇•韓鳳祥▲競技部員 金鼎相•崔應天•劉日新•金瓊洙•林允相•韓鎭達•趙基秀•朴宇秉•李炳相•柳炎俊•金宇鎬•吳鵬淳•金永基▲記錄員崔永翰•李鍾奉•朴寅瓚•▲庶務部設備部施賞部衛生部委員은略

52對0立敎敗

同志社對立敎라式蹴球戰은五日立敎球場에서開催된바同志社가五十二對零으로大勝하얏다

明大野球勝

明大對『스타』野球戰은五日寒川球場에서열린바九A對一로明大軍勝

早大6慶應2

日本『인터칼레지』氷上選手權大會는六日부터淺間六助池에서열린바第壹回『후-키』豫選에早大軍이六對二로慶應軍을익이엇다

來十月에 全朝鮮에

일제히호구됴사 자세한것은협의중

오는 십월일일본 데이회국세조사시행(第二回國勢調査施行)에당하야 조선에서는 그범위를 다소축소하야 림시 호구조사형식으로 그날오전영시 현재로써 전조선에서 일제히 개시할터이라는바 이로인하야 총독부에서는십삼년도예산에일만삼천원을요구하엿고다시십오년도에륙천원을 할터이라하며 조사당시에는 구월이십일경부터 그개시할준비조사를 표준하야 다만이동되는것만조사할터이라는데 그조사는관공리와 및민간유력자중에서 조사원을임명한후다음과가튼항목으로부면(府面)에서직접취급하기로내뎡되엇슴으로경무국(警務局)과협의결뎡되는대로곳공표할터이라더라

▲一、氏名▲二、家庭에在한地位▲三、男女의別▲四、年齡▲五、配偶의關係六、本籍、民籍及國籍

이것이 늣커도십오년 오월중에는완결될예뎡이라더라

上海의望年會

이십칠일밤상해에

상해청년동맹회(上海靑年同盟會)와 한인유학생회(韓人留學生會)와 련합하야지난달이십칠일밤일곱시반부터삼일당(三一堂)에서 망년회(望年會)를개최하얏는데 동쾌하고도감개한감상담이잇슨후에일년동안 썩이던머리를 상쾌하게하기위하야 자미잇는여흥(餘興)과다과(茶菓)로써밤열두시까지 유쾌하게 놀다가헤여젓다더라(상해)

北京의迎新會

경화당반장에서

북경(北京)에잇는조선류학생회(朝鮮留學生會)에서는지난십이월 삼십일일 하오오시에경화당반장(慶和堂飯莊)에서당디류학생과 재류동포들이한자리에모히어서 영신회(迎新會)를열고 림유동(林有棟)씨사회하에김창숙(金昌淑)원세훈(元世勳)배텬택(裵天澤)서왈보(徐曰甫)제씨의감상담이잇섯고식탁에나아가서로서로이역의회포를밋구고화긔애애한중에헤어젓다더라(북경)

鐵道를妨害한

리종규의첫공판

함남북청군 광덕면내리(咸南北靑郡光德面內里)칠십구번디에 본적을두고 주소가일뎡치아니한 리종규(李宗奎)(二七)는 작년십일월 십구일오전 열한시경에경기도진위군송탄면 장당리(長堂里)부근에서 텰도선로우에 돌을놓아두어서 왕래하는긔차를 위험케하얏다 하야 그동안텰도방해(鐵道妨害)죄로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서 취됴중이든바팔일오전에 공판에부첫는데 궁본(宮本)재판장의손에공판이잇섯다더라

作人을威脅壓迫

향상회에안들면논을떼앗는다고 소작조합에선닷새지싸혼다

동텩(東拓)의어용긔관으로소작운동을 반항하고자 황해도재녕군북률면 소작인향상회(黃海道載寧郡北栗面小作人向上會)라는것이 생겻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처음에 회종히를가지고다니며 소작인을 뫼이어회원을 모집하려다가 그수단으로도모집할수가업서서이제는북률면에주재하는

동텩사원

과조합장들이 졸동하야소작인들에게향상회에입회하지아니하면소작권을떼앗겟다하며혹은식량대부를래일이라도하야 줄터이니 입회하라하며혹은 농사하지아니하는 사람에게가서는 봄에소작디를얼마든지줄터이니입회하라는등괴괴망측한수단을다써가며회원을모집하는중인데북면복지리(北面福芝里)사는함태윤(咸泰潤)이라는사람은 지난오일에 그동리사는엇던과부에게가서향상회에입회하라고 하야 듯지아니하니 자긔가

자긔의손

으로지장(指章)을찍엇다는데 그사실을들은 이웃사람들은 분개하야 그놈자가가서 일시언쟁까지 하엿다하며이와가티 괴괴망측하게 회원을모집함으로소작조합집행위원들은 더욱분개하야 일층더위험한상태가보이며 집행위원의말을들으면『우리는이제동텩과싸혼다 는것보다도쓰러저가는소작인을위하야 죽으라합니다이미우리는 벌서부터집행위원들이 합숙되고 잇는데봄일간 해결이하지아니하면 우리나소작인이나먹을것이업서죽겟스닛가그때에는최후의 싸홈이라도 하라고합니다』하며결심한빗을보이더라(북률)

東八號室鐵窓下에 處女自殺

아츰이나밤이나울고뛰다가 쇠창살에목을매어죽은처녀 原因은病苦와悲觀

세상을등진 총독부의원 동팔호실에서 쏫가티어엿분 처녀정신병자가 웃고울고뛰고 헤매다가마츰내무슨 마음이 드럿는지자살을하고 마랏다지난 십이월팔일에시내 종로서에서 길로도라다니며하동을바라보고우짓고욕하며야단을 치는 정신병자정순남(鄭順南)(二九)이라는 녀자를발견하야 즉시 총독부의원동팔호실로보내엇더니병세는차차침정되나 그대신아츰에는 뛰여울고커녁에는 눈을감고 고요히고민을하는등극단에서극단으로가는병중이날로심하더니일월팔일새벽네시경에 동팔호실내 격리실사호에서 창살에다가 옷고름으로목을매여자살하고마랏다 본시동팔호실에서는밤이면숙직원이밤을새워가며삼십분만에한번식순회를하는터인데금일새벽에도대목(大木)이라는간호원이순회는 하엿스나 네시반순회가이나고 네시반순회가 시작될동안에 자살을한것이엇다 자살을발견한당시에는 다소간테온이 잇섯슴으로 즉시응급수당도 베프러보앗스나 아모효과가업시 즉시이세상을 떠나고마랏고시톄는 즉시 경성부에서매장에부치엇다더라

慈惠醫院에大火

칠일오후평양자혜의원화재 열채를태우고환자들은무사 消防手七名重輕傷

칠일밤평양자혜의원(慈惠醫院)간호부긔숙사데이호실로부터 칠일오후네시사십분경에 돌연히불이난것을 서긔산 소방대에서발견하고 곳달려가 진화에로력하엿스나 이때마츰 바람이잇섯슴으로 미처 것잡을사이도업시 화세는더욱 맹렬하여 집에 소방대원누가출동하야 진화에 힘을썻스며더욱이 입원환자를 다수히수용한병원의일임으로만일을념려하야 칠십칠련대 별조소방대(別組消防隊)까지출동하야진화에 로력한결과 십여동(棟)를태우고 동륙시경에겨우 진화하엿다는데 입원환자의병실과 련접하여잇기때문에 일시는 대소동을이르켯스나 다행히 환자는전부안전하엿고 소방수중에서 칠명의중경상자를내엇는데그중세명은 집중에서떠러저 긔절한것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하야 소생케하얏스나 자못중상인으로 입원치료중이라더라

原因은不明 손해도됴사중

원인은아즉자세치안으나데이호실온돌에서출화한듯하다하며손해액은 방금 됴사중이라더라(평양)

三十六稧頭目檢擧

팔일인천에서 열한명을테포

작년이래 인천(仁川)시내에 삼십륙계(三十六稧)가 성행되야 일반에게 미치는 령향이 적지아니함으로 인천서(仁川署)에서는이래범인 테포에 로력 하엿스나두목은 잡지못하고 따만미혜서 일보는자들만 간혹처벌한일이잇섯던바 요사히에 이르러서는 밤이면 장소를변경하야 시내(평시는시외산중)에서도박한다는 인천서수색대구명이출동하야시내룡리(龍里)북십삼번디손명준(孫明俊)의집을경계하고잇던중 삼십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명두명 모혀오는것을 아모어려움업시 팔일오전 한시경에그물주(資本主)인 평북텰산(平北鐵山)출생 김재성(金載成)(四四)외열명을 테포하엿고 증거품으로는 치부책과기타문서와 현금을다수히압수하엿다는데 이번에 테포된범인은 삼십륙계에종사하는사람중에는 거두라고할만한자들이라더라(인천)

宣川에또獨立團

신년연회중놀래인경찰서

선천군남면 삼봉주재소(宣川南面三峰駐在所)에 독립단이습격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지난오일밤에 남면삼성동 김홍긔(三省洞金弘基)의집에독립단수명이 또나타나서 군자금을청구한결과 징수한일이잇섯다마츰신년연회로 취흥이도도하든 선천경찰서에서는 이급보를듯고 놀래어서원천부가출동하야독립단을잡으라하얏스나종적을 알수 업섯다더라(선천)

龍仁에出沒하든

단도강도두명중한명테포

룡인군 모현면왕산리(龍仁郡慕賢面旺山里)김은성 (金銀成)(二一)과동군 내서면양지리(內西面陽智里)정우용(鄭宇鎔)(二三)등두명은지난섯달이십륙일오전두시경에 동군내서면주북리(朱北里)김익성(金益成)(六四)의 집에

한자가량

의식도(食刀)를가지고 침입하야 주인을협박하고 현금십팔원을 강탈도주한 사실이소관 룡인경찰서(龍仁署)에 탐문 되어이래 동서에서는 수원경찰서 (水原署)와련락을 취하여가지고 범인수색에 대활동중이든바 전긔김은성이가 리윤성 (李允成)이라고 변성명을하여가지고 그부근동리 엇던집에서 고용사리하는것을 지난륙일오후에 룡인경찰서원에게 테포취됴중이라는데 그자는정우용과 공모하고십이월이십팔일밤에또론산군은진면방축리(論山郡恩津面防築里)에

모주막에

침입하야주인을협박하고 현금륙십원을 강탈한사실도 자백하엿다하며 그공범자 정우용은아직까지 테포치못하엿다더라

變姓名한두名

종로에잡힌절도

지난일월 첫새벽에 종로서에서 원용출(元容出)오근배(吳根培)두명의 큰절도를 테포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취조를진행하자 마츰내 그자들은전과를 숨기고자 전부성명을고친것이 판명되얏는데 원용출은강언출(姜彦出)이요 오근배는 김응운(金應雲)이라는 자로강은 절도삼범이요 김은강도전과자로 여죄가매우만타더라

大同郡에强盜

세명이나타나

평남대동군동부면 김만석(大同郡東部面金萬石)(三一)의 집에지난륙일밤아츰다섯시경에손에몽치를든 강도세명이 드러와서끈하게자는 김만석을이르커 협박한후에 현금팔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보고가잇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형사를 현장에보내여 범인을 집착하여 엇더자의소위인것을 알게됨으로 불일간 테포되리라더라(평양)

中國人轢死는

누구의잘못인가 아즉도계속됴사

조간긔보=칠일오후 일곱시경에시내의주통 일뎡목(義州通一丁目)을 지나경성역으로향하든 데일백륙십삼호 뎐차가 중국인로동자한명을치어죽게하엿는바그의시톄는 관에너허 서대문서에 보관하고중국령사관(中國領事館)에 조회를하얏스나또모지주소와 성명을 알길이업서 그대로보관중인바 경성부 (京城府)에 의뢰하야 매장케할듯하다하며 동서에서는 이어서 그뎐차의 차장 한광진 (韓光鎭)(二三)과운뎐수 리홍규(李弘奎)(三一)를재위가며 됴사중인바 운뎐수는 권허그당시의 일을모른다하며 경찰의말을 드른면중국인의 과실인듯하다고 말하나 말못하는 그의시톄는 관에담긴채로잇서 됴사할길이 묘호하다더라

郵便所員이盜賊

풍천에서평양에보내는돈중 오백원을훔처내인우편소원

황해도풍천우편소(豐川郵便所)에서 지난달이십오일에 평양우편국으로 보내는돈 이천이백구십원중에서 현금오백원이 분실되엇슴으로 우편국에서는 크게 랑패하야 소동을이르켜사리원、송화、신천(沙里院松禾信川)등각우편국소를 됴사하엿스나 별로의심할여디가 업슴으로 돈을부친풍천우편소를엄중히됴사한결과 동우편소원김원뎍(金元喆)(三六)의소위인것이 판명되엿슴으로 김원뎍을 검사국으로 넘기엇다더라(평양)

自福公普火災

소사실을태이어

평남룡강군 서화면(龍岡郡瑞和面)자복공립보통학교 (自福公普校)에서는지난 칠일오전령시삼십분경학교 소사실(小使室)로부터 돌연히출화하야 소사실전부와 변소두간과 교원숙직실일부를 소실하고 부근주민들이 진력한결과 동한시경에 진화한바인축의 사상은업다하며 원인과손해액은 아즉됴사 중이라더라(평양)

大同橋에서自殺

어름에떠러저 중상하야죽엇다고

지난칠일 오전여섯시삼십분경 평양대동강인도교에서 엇던 청년한명이 자살하려고뛰여내려 얼음우에 머리와기타여러곳을 몹시상하고 인사불성이되여 넘어저잇는것을 통행하든사람이 발견하고 매동교경찰파출소에 보고하엿슴으로 경관이 현장에달려가서 부근에잇는 등본(藤本)병원에 옴겨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원래놉히 상한까닭에동십일시경에 드되어 사망하엿다는데 이사람은부외선교리 오선일(船橋里吳善一)(三六)이며원인은세상을 비관자살한듯하나 자세한것은 아즉 미상하다더라(평양)

崇仁洞에僵屍

시톄는경성부에

시내숭인동(崇仁洞)팔십오번디부인집에서 팔일아츰 여덟시경에 일뎡한주소가업는권경수(權敬秀)(五○)의 어려죽은시톄가발견되야 즉시경성부에서 매장에부치엇다더라

너머지는바람에 리진총에마저죽어

친구를그롯죽인장씨는취됴중

옥구군 개정면귀암리장재성(沃溝郡開井面龜岩里張在聲)(三三)과그동리 김봉선(金奉仙)(四四)두사람은 지난달이십구일에 진안군(鎭安郡)어느산중에사냥을가서도라다니다가 김봉선이가 돌

터지자압헤가든장재성이가마저 승으로곳교군에 태어가지고 구암리 서양병원으로 밤을새여가서의사에게치료를 식혓스나 효험이업시 삼십일밤에 드되어 사망하엿슴으로 김봉선은복하 군산서에서과실살인죄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군산)

돈안내면『死刑』

사천군강도의대담한위협

경남사천군 읍서면화뎐리(泗川郡邑西面花田里)리괴래(李槐來)의집에지난 십이월이십이일오후십시경에 강도가 침입하야금전을 강탈하고도주 하엿다는 사실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다시 그 내용을 듯건대 양복입은사람세명이 드러가서 리씨를 백방으로위협하야현금삼백사십원을 강탈하고또 몃칠후에모일에충남대뎐역(忠南大田驛)으로가져오라하엿스며 만일 불응하면사형선고(死刑宣告)를하고따라서 일가족을 전멸한다고공갈한일이라더라(사천)

從兄弟끼리殺人

가해자는도주상세는아즉비밀

성천군 쌍룡면삭창(成川郡雙龍面朔倉)에서는 살인사건이발생되엿는데 자세한내용은 아즉발표할수업스나 사촌간에 술을먹다가 싸홈이나서 그와가티 되얏다는바 범인은이미 도망하엿고로목하형사가팔방으로수색중이라더라(성천)

勞働夜學에寄附

인천

중앙의원장 안희수(仁川中央醫院長安熙洙)씨는그망처 백중긔(白仲基)씨의 명의로금번에 인천로동총동맹야학부 (勞働夜學部)에 현금오원을 본사인천지국에부탁하야 긔부하얏더라(인천)

放火、竊盜

소동하는틈에 물건을훔처가

강화군하뎜면 신삼리(江華郡河岾面新三里) 리근칠(李根七)의집에는 지난오일밤열시경에 엇더한사가 그집보퉁이에 차아둔나부가리에 불을노코 집안사람들이 불을끄는틈을타서 안으로드러가서 물건을 도적하야갓다는대 범인은방금 당디경찰서에서 엄탐중이라더라(강화)

珍島小作爭議

최재명씨는검사국에

진도소작쟁의(珍島小作爭議)로 그곳소작회장최재명(崔在明)씨가진도경찰서에 검거 되얏다함은이미 보도하엿거니와 그동안취됴를마치고 지난오일에 목포검사국으로 압송 하얏다더라(목포)

偽造銀貨

호떡집에서발견

시내경운동(慶雲洞)구십일번디중국인 호떡장사 근덕빈 (斳德彬)의집에서 오십전짜리조선은화를 호떡갑으로 바든것이 발견되야 소관종로서에서는즉시각처로통첩을발하야 목하그범인을 테포키에로력중이라는데 그위조은화는대정십삼년도에발행한것과갓더라

市井雜事

◇美人搜索願 시내 중림동(中林洞) 일백십삼번디 허신득(許辛得)의술집에 팔려잇든문채경(文彩卿)(二六)이라는미인이칠일밤에 간곳이업다고 동대문서에수색청원을데출하얏다고

◇中國人竊盜 시내 서소문뎡(西小門町)에산다하는중국인김창영(金昌永)(二五)은팔일새벽시내관수동(觀水洞)어느중국상뎜에서 라단두필을 훔치어가지고다라나다가 종로서에 잡히어갓다고

◇左足을轢傷 륙일오후네시오십분경에 호남선임성리역(湖南線任城里驛)에서목포행의 렬차가도착하라할때에 차가 채뎡거하기도전에 삼등객한명이 나리다가 잘못하야 외인발을부상하엿다고

饑饉義金

구제회에온바

▲慶南河東郡玉東面大谷里勞働夜學生一同二圓(河東饑饉救濟會經由)▲河東饑饉救濟會三圓▲市內孝悌洞二六八沈戩洵五十五錢

종명자

▲열아홉살이라는꽃다운청춘으로정신에이상이생겨밤이나낫이나울고부르짓다가목을매어죽은처녀가마츰내동팔호실철창에잇다、미처서사느니보다는 차라리죽는것이행복일는지▲우리는그처녀의 가련한일생을위하야눈물을 흘니지아니 할수업는동시에『미처서도살수업다』하는조선사람의 웃업는눈물을 자어내게한다 ▲독자여、이것이엇지일개처녀의 일신에만 한한일로볼수잇스리오!『미처서도 살수업다!』는 이비극을 눈압해보면서도、우리는 여전히『미친체』만하고살어 갈수가잇슬가▲그대로라도 살수가 잇다하면은행불행간에 사는대로 살것이오 그러치안타하면……

一月七日부터新春第二回大特別提供
△教育實寫 米國파라마운트會社特作 鷄卵孵化 全一卷
探偵怪奇活劇 남뫼-완 第二回 全十五編第三編第四編三十卷上映 가-스링그리휘-트主演
名女優 獨乙우니온會社特作 이르딩그런嬢主演 人情劇 街頭의薔薇 全七卷
佛國文藝映畫 巨人꼬란 後編七卷 前의大作 바울유에셔나-氏主演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一月四日부터五日間上映
米國폭쓰會社 寫實 鳥의生活 全一卷
米國폭쓰會社 喜劇 撮影所작난 全二卷
米國폭쓰會社 에도나마-후、쑴-우오카氏共演 人情劇 無言의證據 全五卷
米國폭쓰會社 투이스에스톤氏主演 社會劇 愚者 全七卷
一月八日부터上映 (다음豫告) 絶海의處女 全八卷 敵은暴漢 全五卷
포옥스社封切場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자미잇고도 壹割引以上利되시는
賞品附特販賣 新正舊暮
新品豐富
新正舊暮를當하와商品을만히準備하고더욱親切히酬應하오니電話로나地方諸位는振替口座京參〇壹貳番으로注文하시고 구경이라도오소서
舊年末까지特別賞品으로 사시는물품갑의拾分壹되는商品中貴意에合하신것을더드림니다(拾圓어치사시면拾壹圓어치물품을가저가시는것)
通信販賣
品精價廉
동아부인상회
電話光壹貳〇四番
京城鍾路貳

算術雜誌 數理界 (第三號)
新年懸賞 受驗準備
◇◇中等學校試驗밧으신 先生님들의말씀
◉前號課題正解者及解答書發表
◇大正十三年度 入學試驗問題新式解答
◉讀者의寄書、問答、노래其他자미잇는것들
◇어린이十二月號 懸賞問題(數字計算) 解答
◇新年懸賞問題 ◉研究室(메-톨法度量衡實行에對하야)
京城以文堂에서寄贈하는特別賞品이잇슴니다 入賞者에게本社에서進呈하는賞品外에
◉定價十五錢 送料二錢 要先金、多數면割引送呈 但詳細한規定은本誌에記載하엿슴니다
◎發行所 本社 京城府桂洞一三一番地 振替京城一三六七七番 數理界社
支社 京鄕各書店
◎發賣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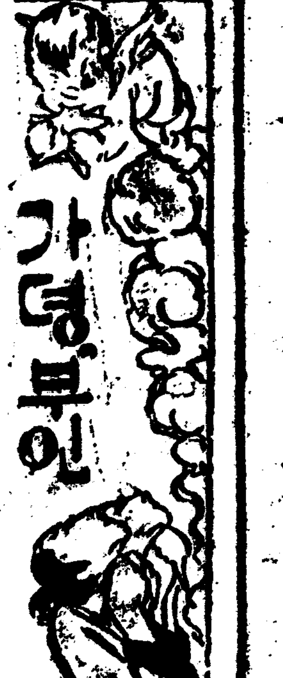
新年에「소원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優等成績으로進級될 入學試驗에도合格될
지금 全朝鮮數理教育에有名하신 先生님들의指導下에서나오는「알기쉽고、자미잇는、算術雜誌」를여러분께 一冊식 새해의선물로드려야만하겟슴니다 (內容主要目次)……

典故大方
讀者는朝鮮製紙品은上等紙給紙枚數二百二十張 定價二圓五十錢 郵料十九錢 要先金
我朝鮮四千年以內로文獻이許多하지만은典故方法에對하야는可稱할書冊이稀罕하든바 典故大方은諸家文獻을引用分類하야證據가充分하고事實이詳細하야 一開卷에瞭然若指掌이로다 往千年奇蹟이洞明하고來千年書學을 ... 愛讀諸君子는一閱覽하시면 ... 確信하노이다

典故大方目錄
第一編 歷代編 殿宮園墓 萬姓始祖編
第二編 相臣錄 文衡錄 湖堂錄 淸白吏錄 功臣錄 名將錄 登壇錄 文武制闈錄
第三編 經筵官抄選錄 儒賢淵源圖 門人錄 文章家
書畫家
第四編 宗廟配享錄 文廟配享錄 書院鄕祠錄 麗朝杜門洞七十二人 四色黨派原因略說 附略圖 十二士禍錄 宣祖壬辰殉義諸人 北關七義士 起義僧將 義妓 義兵將 光海戊午深河役殉節臣 仁祖甲子适亂死節臣 仁祖丁卯虜亂死節臣 仁祖丙子胡亂死節臣 仁祖丁丑斥和臣 江都陷城時殉節婦女 仁祖丁丑潘陽陪從臣 附陪從八壯臣 英祖戊申淸州亂死節臣 純祖辛未西賊亂死節臣 高宗丙寅洋亂 高宗辛未洋亂死節臣 高宗壬午軍亂遇害諸人 高宗甲申內亂六大官 高宗乙未事變死節臣 高宗乙巳五條約時死節臣 宣祖壬辰明朝東援錄 高宗壬午淸國東援錄 中國通信使 日本通信使 泰西交通及通信使 外國人來貢 外國人來仕

總販賣所 京城府慶雲洞四三 振替京城壹壹七〇二 漢陽書院

가뎡부인



미국은무도와결심 철면조먹는것이한습관
세계각국정월놀이(二)

무엇어든지 세계대일을 자랑하는미국의 정월놀이는 엇더한가? 미국서는원래『크리스마쓰』를 굉장하게 직히는나라이라 정월놀이는 별로히 치지안습니다 그러나류행하는 풍속몃가지를 소개하면

신년젼야라는 것이잇는데 신년젼야(新年前夜)에는 남자나녀자를 물론하고예수교밋는사람은 밤을새여례배를 보고밋지안는사람은모다례복을 찬란히입고모혀밤을새이며무도를하야 밝힘니다 이것이『늬우이어스이부』이올시다

신문잡지에서 는볼륨을경대한 신년호를 발행하야신년이 온것을 축하하고각가뎡에서는

『늬우이어쓰띄너』 신년첨심이라는것을먹는데손을청해노흔후 주인과 주인마누라가마조안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음식중에주요한것은『칠면조』를 먹는것입니다 칠면조를 배를가르고 그속에 면보와 양념을너코두서너시간을 구어 쇠버노코주인이손수잘라손님압헤노나줌니다일반으로는

신년결심이라는 것이잇는데 이것은『늬우이어스래솔류숀』이라하야 새해부터는당배먹키를 결심하는이도잇고또무슨 못된버릇잇는사람은 그버릇을 다시안하기로 결심하는이도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결심만 그럴케할뿐이지 실상실행하는이가 적기때문에 누가무슨결심을하고 그대로 실행치못하는것을보면그사람이『신년결심』하듯햇나부다고한다합니다

미음쑤는법

승니다 현미(玄米)로 미음을 만드는법을말씀 하겟습니다 현미일합(一合)에 물팔합(八合)을 붓고천천히 오래동안 쇠려서물을삼합쯤되도록 조린후에 한번걸읍니다 미음은머다히 자양분이만흠으로 병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적당할뿐아니라 섭사하는사람에게 가장조흔 음식이올시다 조선서는 흔히병인에게죡 쌀미음을 하여주는 일은만흐나현미(玄米)로는 아죽 미음을쑤는일이 업섯습니다

불에듸인데약

불에살을 듸윗슬때에는 뭉퍼기름이나『와세린』 가튼것을 발르는것이 매단히조흡니다 그리고그우에약송을대이고붕대를감어둘것이올시다 만약물집이 잡히거든 소독한바늘로 뛰고름을싸내인후에 이십배의붕산연고(硼酸軟膏)를 바르던지혹은 아연화연고(亞鉛華軟膏)를 바르고붕대로감어 둘것입니다 만일기름을갑작이구할수업거든장을발너두는것도 조코닭의알흰자위를바르는것도조흡니다

부인상식(九)
얼골에기름흐를때

남자던지 녀자던지 얼골에기름이지르르흐르게 되는 사람들이 만습니다 그러한사람들은얼골을씻을때에는 언제던지 반드시 더운물을 쓸것이요 비누로기름을 씻처바릴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수한후에는 알콜을발너두는것이 조코또한붕산(硼酸)을더운물에타서세수를하는것도매우효과가만습니다 이것보다도밤에잘때마다침강유황(沈降硫黃)四、○、아연화(亞鉛華)二、○、권분(澱粉) 一○、○『와세린』二○、○을바르고 그이튼날아츰에 더운물로 씻처바릴것이올시다 이럿케 계속하야늘행하면더욱효력이만습니다 하여간얼골에 지방이만흔사람은 지방이만흔식물이나자극성(刺戟性)이잇는 식물을먹지말것이요 하로에이삼차식얼골을씻는것이조

滿鐵을相對로訴訟
립대금이십만원관계로 동아상공회사에서소송

요사이 동아상공주식회사(東亞商工會社)에서는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會社)를걸어서 이십만원이라는 거액의립대금(立替金)지불청구소송을경성디방법원에 데긔하엿다는데 원래이와가티 큰사건은 범누국에까지 보고가든난후가 아니면발표치아니하는것으로아즉까지그의자세한 내용은알수업스나 내용이 매우장황하고 복잡한것은사실인듯하야 장차 만텰당국자는책임문뎨까지 생길는지도 알수업다더라

男便을걸어서 부양료를청구

인천(仁川)공립보통학교마상학(馬相學)이라는 훈도는자긔의본처가 잇슴에도 불구하고동교녀훈도손(孫)모와 간통하야아들까지낫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요사이에 시내청수뎡(淸水町)이십이번디 김간란(金干蘭)(三一)은평산(平山)변호사를대리인으로 고양군한지면보광리(高陽郡漢芝面普光里) 이백삼십팔번디 마상학을걸어서경성디방법원 민사부에 칠백이십원의 부양료(扶養料)청구소송을 데긔하엿는데 이제 그소장의내용을보면 원고의남편되는 피고는 약삼만원의 재산이잇는사람으로 인천공립보통학교 훈도로잇슬때에 재작년부터 녀교원손모와 정을통하고 지내다가작년칠월경에는 아들까지 나흔후로는이것이 감독관텽의 발각한바되여 두사람이 모다면직을당하엿는데 원고는피고와 사이에희선(熙璿)(九)과희뎡(熙珽)(三)의 두아들까지 잇서서피고는 이때까지 원고를부양하여오다가 작년팔월 이십이일부터는원고를 조금도 도라보지아니하는동시에 생활비를 주지아니하야 방금원고의 삼모자는도로에방황할 비참한형편에 이르럿슬뿐만아니라 그아이들을 교육도시키지아니하면아니되겟슴으로 위선작년팔월부터 명년팔월까지 매삭삼십원비례로 권긔와가튼금액을지불하라하야 그중안 김시두(金時斗)판사가 심리하든중 데일심에는 피고의궐석으로 원고가 승리하엿다가피고는 변영만(卞榮晩)변호사를 대리로 다시 고장신립(故障申立)을하엿다더라

漢江얼음
명년에는 쌔게먹게되리라

금년정월은 매우 따뜻하엿섯는데 이삼일이래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져서 칠일에는 령하(零下)십팔도로 뭄시 치위졋슴으로 경긔도경찰부 위생과에서는 한강에 출장하야 실디검사를 행하엿다는데 이미집히가 네치륙푼이나 되얏스며 이후로 령하이십도가되면 매일륙푼씩얼고 이십오도에까지 미츠면 한치식얼음이 어는데 이러케어러드러가면 금년얼음은 상당하게얼러 임으로 칠일이나 팔일에는 룡산(龍山)동머문 서머문 영등포(永登浦)각경찰서에서직접관계잇는동칠관을모아노코얼음을캐여 내는데대한협의를한다는데얼음은캐기를허가할터이라하며얼음회사에서는매일현장에나가독게를 추량하는중이닛가 겨울안에조흔얼음을 만히쾌어 금년 여름에는 싼얼음을 먹게 되리라더라

奇人奇緣(72)
金東成譯　盧心汕畵

六二、아! 순희야

문을들어서매 그안의 화려한광경은 어두웟슬수업섯다 미상불부자가 사는듯십헛다 그들은안으로 연도하야 숙녀부인의 방으로들어갓다 부인은 아닌게아니라 중풍으로 긔거가자유롭지못한지 도툼레달린침대와 가튼의자에 몸을비스듬히 누이고잇섯다

다리고들어온하인이

『한낙작과 그부인께서오섯슴니다』하고고하매

『아! 뎡희야! 이리오너라』하고손을내밀엇다

뎡희는 그말대로 부인압흐로가섯섯다

부인은『아! 반가워 반가워!』하고 뎡희의얼골을 가만히들이다보다가

『응? 아니다』하고는 무엇을의아하는듯이 더욱히 뎡희의얼골을 들이여다보앗다 그러나손은여전히잡고잇섯다

뎡희는 귀여운얼골을 뒤우며

『무엇이 아니여요? 큰어머니』하고 물엇다

『아니다』하는것은무슨말일가 그러나뎡희는 아모것도 이상하여하는것이 업는모양이엇다 자긔가생각하고 잇던그백모는 그다지 달려지지 아니한것가탓다 그립고그립던 생각이 컨컨가슴속에서 울어나오는듯 하엿다

백모는부르지젓다

『아니지마는 아닌것이결국나에게는 더즐거웁다 너는뎡희가 아니다 뎡희가아니다 내가더사랑하는 순희이다 아! 순희야! 순희야! 네가살아잇섯다하는것은 나에게 얼마나행복인지 몰으겟다』

그러고 싀원치안흔팔로 뎡희를쓸어당기며

『아, 더 이만치갓가히오너라 이런과가티나의얼골에네얼골을 대여다고 나는네이름이 뎡희로변한까닭도다안다』하고는늘어안으랴하엿다

경호는 무슨영문인지 해아릴수업섯다 그러나그까닭을안다고 하는이상 다시무엇이라고할말이업섯다 뎡희는그곡절을아는지몰으는지다만

『큰어머니! 큰어머니를 퍽보고십헛서요!』하는큰어머니를 뜨며 쏘치는눈물에 흑흑늣기기 시작하엿다

『그만이라고하얏더니 이제보닛가 뎡희인줄로 알앗던것이 실상은순희입니다그려!』하고설명을하엿다

『아니야요 큰어머니! 제가 뎡희이올시다』

말을다하기전에 뎡희는 『너는고러케도 생각하겟지마는내눈은틀님이업느니라 무엇으로보든지 네가나어섯는니라 그리고모리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러고모든용모가 뎡희와는 딴판으로달런니라 아모리 어렷슬째의용모와 지금의용모가 틀린다하더라도 그래도긔일수업는 것이잇는것이다』하고조곰도의심할여디가업시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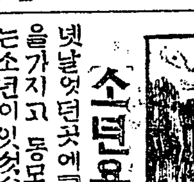
경호는 아모말도할수가 업섯다 다만뎡희일흔사람과가탓다

『그러나 나는엇재서이러케되엇는지 대개짐작합니다 아마당신께서도이상히역이실터이나 말하기어려운것까지말슴을하니다마는 이애부친은 집안에서유독히번롤니엇습니다 지금 백작과도종종싸호것은 물론이오 나와도늘쌋호질을한후에마츰내이곳을떠나게되엿슴니다』

만하엿다 얼마후에숙녀부인은 『아이고참 며칠만에쉬일터이냐』 남작이 오신줄도이젓고나 얼는맛드리잔 비로소 경호가잇는줄을 알은듯이 뎡희를 데어노코 경호에게로 향하엿다 그리고처음으로 맛난다는인사를하고

『나는이런것을만나 보니 이러케반가운것이 업슴니다 뎡희든지 순희든지 둘가운데 꼭하나는 잇섯습니다 부친이 이곳에 잇슬때에는 이런것을 나는순희를 내팔로 생각 하엿는데 뎡희는 거의그상의가 되엇섯습니다 비 순희는정말로 사랑스런운소녀이엇습니다 그래서 나는내팔로생각하고 항상갓가히 잇게하야 마치수중에잇는 보배와가티역이고잇섯습니다 그후로이것이 부친을따라서 호주로간후에도 항상마음에 걸리는것은 요컨에이것에게서편지가왓슬때에도 정말깃부기는 하엿스나순희가 죽엇다하야 긔막히게 락담을하고 눈물까지 흘리엇슴니다 그러나다시생각하여 들이다가 는족하이냐가 뎡희가 살아잇스면 뎡희를순희와 가티 생각하면

童話
소년용사(一)



넷날엇던곳에『로복』이라는떠벙을가지고 동모들에게 부러움밧는소년이 잇섯슴니다 이소년은 무슨생물의 애쓰는것을보고는 꼭도와주지 안코서는견듸지못하는 의협심이 잇섯슴니다 그래서 파리한머리가잘못하야 우유통에 싸져도반듯이구원하여주엇슴니다또개고리가튼것이다른짐승에게곤경을당하여도꼭그것을구원하야주엇슴니다

엇던때『로복』이가못근처를지나가노라닛가 우연히 아이셋이 그물을쓰고 강아지한마리를 붓들어 그머리에큰돌을 실도매이고 잇섯슴니다 그리고 불상하게도이강아지를 못한가운데 던저버렷슴니다

『로복』이는이모양을보고

『참몹슬것도한다』

하고 혼자말을하며 곳쳐고리를벗고풍덩못가운데로뛰여들엇슴니다

조곰잇다 가팔을버커어강아지가허덕어리는곳에헤엄쳐와서한손으로개를쇠러안아구해냇슴니다

강아지는물에싸지어잇섯슴으로거의반사반생인참혹한모양이되여잇섯슴니다 아즉 죽지는안코잇섯습니다

『못되불악다구너들!』

『로복』이는숨을헐덕어리며이러케말하고처고리에서손수건을내여정청것개털을씻쳐주엇습니다

『참못된놈들 나는인제는너의들과동모가되지안켓다 인제다시는너희와놀지안는다』

약한자를도아주기로주의를삼는소년이 녯가『로복』이는아이들의무정한행동을비상히 로하엿습니다

『우리들도 무슨그런일을하고십허서하는것은아니란다』

하고아이하나가말햇습니다

그리고돌재아이는

『우리들은그러케하고 십흔생각은도모지업다 우리들은이강아지를아조조와하닛가-그러케하는것이불상하다고는생각하엿스나……그러치만우리아버지가 그러케하라고 하엿단다』

그리자제일나희만히먹은아이가

『아버지는집안이 가난하닛가개가튼것은 기를수 업다고하셧단다 그래서남을 주는것보다몰에싸트려 죽이는것이 낫다고하셧다다』

하고말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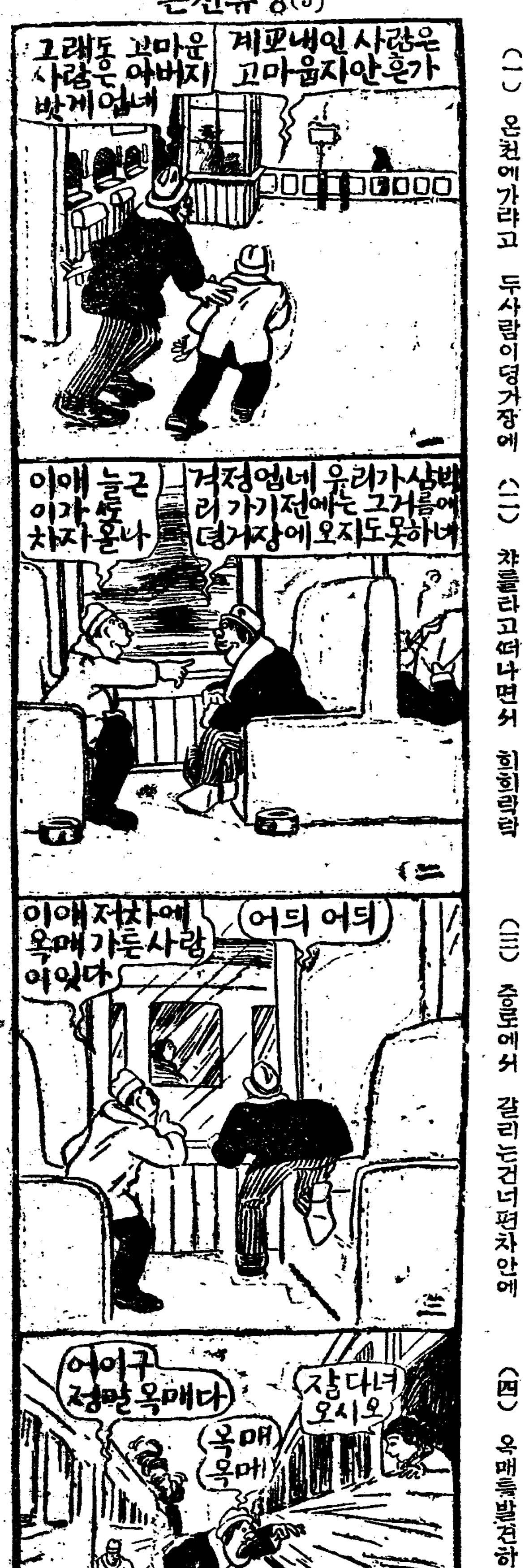
『그러면그개를 너의집에서아기를터이니- 나는 가진것이얼마안되지만 너를줄터이니개에게 무엇이든지 먹을것을사주는것이 조켓다 나는지금 삼전밧게업는데- 그러나잠시동안은 그것으로 련명을식이겟지-』

『로복』이는 이러케말하고 품속에서동전을쇠내이니그동전은서푼이다-금돈이되엿습니다 그럴뿐더러 새노래서눈이 번쩍듸이는듯한새금돈이 되여잇습니다 세사람형데가 놀라는 것은말할것도업고『로복』이도이상히역이는얼골로

『이게웬-일인가』나는이써외지금돈이라고는한푼도업섯는데-』

하고 혼자말가티 중얼거리엇습니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30)
온천휴양(5)



(一) 온천에가랴고 두사람이뎡거장에 (二) 챠를타고떠나면서 희희락락 (三) 중로에서 갈리는건너편차안에 (四) 옥매를발견하고 더랑때

朝鮮米輸出前途
波瀾重疊을豫想하는 日本政府外米拂下를重要視

昨年十二月中의朝鮮米의輸出은十一月末外지約八九千萬石의輸出을示하엿슴에不拘하고出廻가遲遲不振하야結局十二月中에는約四十萬石內外의輸出에止하야現在日本의朝鮮米市勢가三十六七圓臺에在하야市勢로는相當히高價일터인데一般이昨年은旱災等으로日로四十圓臺를一般히豫想한結果로一般氣溯의賣拂後援策은이 **賣惜** 으로如斯한不況을來한이아닌가推測하 今月中에拂下의完了豫定이라는日本政府의外米拂下가如何한結果를來할는지相當히重大한影響이有하리라하나一面으로滿洲粟의輸出이率直低落後尙且輸入의憂가有하야出廻不振한과銀高關係로案外少量이엇고又政府拂下의外米輸入이百斤에十圓假量으로朝鮮內에서는相當히採算이可能하나現在拂下結果에依하야는百斤十圓三四十錢假量으로輸入을行하면十一圓內外에達할市勢로此 **輸入** 을行함與否는疑問이나或程度의品不足을生하야市勢는最近昂騰하야日本에對한逆輸을生할에至치안음外又其結果로日本과의去來는充分케되고輸出도自然杜絶되야還히日本에서品不足을來하야市勢昂騰하야朝鮮米의輸出을促함에至치는안흠外遲하야도其時期는二月末外지라고一般에豫想되는바今後朝鮮米는相當한强潮로夏期外지는一强一弛의波瀾을繰返하리라고觀測되더라

命安東支店支配人　淸水角太郞
命遼陽支店支配人　深尾　愼一
命淸津支店支配人代理
命奉天支店支配人代理（新市街出張所長）
開原支店支配人代理　大串　盛多
命奉天支店支配人代理

昨年中日本對外貿易
入超六億四千五百萬二千圓

（東京七日發）大藏省發表十三年度外國貿易統計는左와如하더라

輸出　十八億六千八百十萬四千圓
輸入　二十四億五千一百八十一萬六千圓
入超　六億四千五百萬二千圓
內金銀輸出入
輸出　二五千圓
輸入　四百十一萬一千圓
入超　四百十萬六千圓

下半不渡手形

京城手形交換所下半季中의不渡手形은四百十三名、六百二十四枚、十五萬四千七百九十八圓四十五錢으로前年同季에比하야百十五名、五萬九千四百九十九圓十一錢의減少오上半季에比하면人員은五十四名의增加이나金額은三萬一千百五十八圓十錢의減少이더라

紐育株式暴騰

紐育三日發電에依하면新年의紐育株式市場은大活況을呈하야投機熱의旺盛한것은實로與驚할만한中에도買氣最盛한者는無線電信會社와電氣會社株로『제네랄、토릭크』株와如한은去三十一日에一躍二十八弗의奔騰을示하얏고유에스、스틸株도强硬하야本日은百二十二弗半으로歐洲大戰當時即千九百十七年以來의新高價를示한바其原因은製鐵界의好況을因함이오何如間今年의米國財界는好景氣를呈하리라고一般에게確信되더라

朝銀支店長更迭

朝鮮銀行에서는十二月三十一日附로左와如히支配人及支配人代理의更迭을行하얏더라

濟津支店支配人　石井　濟太

朝鮮內工場能力調查(一)
▲滿洲製粉鎭南浦分工場

資本金　五、七五〇、〇〇〇圓
拂込　三、二七五、〇〇〇圓
敷地建物　工場煉瓦四階建七二二四坪
設備　울포式小麥分離機一臺　푸런스코울마렌一　硏磨用除塵機一　울푸自働鐵片分離機一　鐵製小麥硏磨機一　小麥分離機用除塵機一　울푸硏磨機一　原料調整機一　鐵製平篩機械一等
生産能力　晝夜三〇〇파렐卽六日入麥粉一三〇〇袋
生産高（十二年）
麥粉　鶴寶印　九、三〇五袋　雲鶴印　一八四、一〇三袋　寶壽印　二三、五三九　四等粉　五、八九五　雲龍印　六斤入　九、七六二　麥（百斤入）　四二、四〇五
職工三十人

阪神棉花在高

（大阪七日發電）日本棉花同業會調查十二月下旬末의阪神綿絲在貨는合計一萬七千七百三十三俵로前旬末에比하야二千七百四十八俵의增加이더라

鐵珠板

▲昨年中日本의對外貿易은 入超六億四千萬圓으로大正八年以來累計는 二十二億餘의大入超이다▲此와反하야米國의過去一年間對外貿易은 輸入九億八千二百萬弗、輸出이二十五億四千五百萬弗로計減하면大出超十五億六千三百萬弗이엿다 이러한比較에不拘하고米國의好景氣來를理由로하야日本에好景氣來를渴望하는것은 未幾에日本財界에中逆來의兆徵!

期米
仁川期米第一報　一月八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	—	—
中限	三四、七五	三四、六五	一〇低
先限	三五、九〇	三五、八九	一低

前場小落

昨後場阪地三十九圓六十錢의止價와共히三十六圓〇五錢에頑强히場를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九圓六十四錢인昨止價보다四丁反高를據하고案外賣氣旺盛하야二十五圓九十四錢에場을始한後九十九錢外지反騰하엿스나阪仁綿綿期의賣物이旺盛하얏슨터러阪地亦五十錢臺로反落함을伴하고六七節을亘하야九十錢外지低落하엿다가九節九十五錢으로結局阪地止價五十三錢인依然軟勢를伴하고結局九十二錢에場을止하엿는데高低의差는九丁이며阪仁의稍는三百六十一丁이더라

俄然頭重乎

新甫發會以後로稍漸低移하야三十九圓三十錢外지瓦落한阪地時勢는昨後場에入하야突然六十錢臺로奔騰하엿든바더욱强硬하든當地는一層硬氣를助長하야三十六圓

米豆餘話

▲新春의高價를預言하든各市場人氣는아즉도依然潛在한模樣이나環境의事情은同感을與치안는다▲阪地는發會價를最高로하고近五十丁이나反落하엿고當地亦牽制되야僅히六圓臺를突破함에不過하엿다▲新年劈頭의頭重保合을呈하야更히五圓九十錢臺로崩潰하엿다▲新年劈頭의쾌거름으로六圓臺外지올나갈쎄의硬派의氣分은얼마큼愉快하엿슬터이지만은更上一層의勇氣를내지못하고五圓臺로退下함은傍觀者에게도한遺憾인걸▲그러나自然을따러趨移되는大勢에야人爲的行動으로는到底히防止키難할것이다▲果然말이지本年中大勢라하면勿論硬派의方針이當을得하엿다하여도過言이아니겟지만은時時刻刻으로轉換되는即目下情勢야말로軟軍의世界가안일가한다

㋮㋒의巨魁戰
三期共히戰線延長

新甫發會後로阪軟仁硬의形勢를作함은當地場有力筋의行動인人爲的時勢를演出한感이不無하다果然當市場으로보면㋮筋의當限五千八百石中限一萬九千五百石先限二千百石의賣物과㋒筋의當限六千百石中限二萬二千五百石先限五千五百石의買物인實로莫上莫下인蚌鷸의勢를作함과如한바今後의勝利는何筋에게歸할는지?實로疑問이다軟派에게는當面의出廻가依然旺盛한同時에前途를樂觀할만한點이잇스며硬派에게는數字的으로證明할만한本年의供給不足인遠大의觀察를가지고一時的現象으로突發되는軟材를無視하는模樣이라이와가티猛烈히對峙하는兩筋의戰勢는참으로當市場注目의焦點이라云云

仁川正米小緩

今朝㊤玄米는三等三十五圓五十錢四等三十五圓인昨日보다各十錢式의低價를示하고地磨米는三十三圓十錢인二十丁을反落하엿스며精白米는反히十一反高인三十九圓七十錢을唱하나正租는在來種十錢四厘인不變으로改良種은十錢七厘인一厘를反高하더라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四、九八	三五、九四
二節	—	—	三五、九九
三節	—	三四、七五	三五、九六
四節	—	—	三五、九九
五節	—	—	三五、九四
六節	—	—	三五、九〇
七節	—	三四、七〇	三五、九〇
八節	—	三四、七〇	三五、九三
九節	—	三四、九八	三五、九三
十節	—	三四、九八	三五、九二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五、八九
二節	—	—	三五、九〇
三節	—	三四、七〇	三五、八六
四節	—	三四、六九	三五、八六
五節	—	—	三五、八六
六節	—	三四、六五	三五、八六
七節	—	三四、六五	三五、八九

取組高

當限	六四、〇〇〇
中限	二七七、〇〇〇
先限	八二、〇〇〇
賣買石數	三二三、〇〇〇
本期總高	四、八一九、〇〇〇

大阪期米（八日）

前場

	寄	當	中
	三九、一〇	三八、九八	三七、三九

	當	中	先
一節	三九、一四	三八、九八	三七、三〇
二節	三九、〇〇	三八、九〇	三七、二〇
三節	三八、九九	三八、八五	三七、二八
四節	三八、九八	三八、八〇	三七、二五
五節	三八、九九	三八、九〇	三七、二〇

後場

	寄	止
當	三八、五二	三八、八一
中	三八、九三	三八、九八
一節	三八、五三	三八、七九
二節	三八、七九	三八、七九
三節	三八、七九	三八、七九

東京期米（八日）

前場

一節	四〇、五〇	五節	四〇、四〇
二節	四〇、六〇	六節	四〇、四〇
三節	四〇、六二	七節	四〇、四九
四節	四〇、五〇	八節	四〇、三三

後場

一節	四〇、四九	五節	四〇、三七
二節	四〇、四四	六節	四〇、三七
三節	四〇、三七	七節	四〇、三六
四節	四〇、二八	八節	—

各地期米（八日）

	前場	後場
兵庫	三九、二九	三九、三〇
下關	三九、〇九	三八、九八
桑名	三八、〇〇	三七、八〇

各地期米比較（八日）

	昨後止	今後止	比較
大阪	三八、六〇	三八、六四	四高
兵庫	三九、一九	三九、二九	一〇高
桑名	三七、八五	三八、〇〇	一五高
下關	三九、一二	三九、〇九	三低
東京	四〇、六五	四〇、五〇	一五低

株式
京取市場　八日
前場京取相場

京取	四〇高	
仁新	保價	
大新	二〇高	
安取	二〇低	
鍾新	二三〇低	

京取戰漸熾烈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前場賣買千四百五十

今前場은京取中心相場으로大新阪付小高電에南의三百買가잇서一躍六十錢高로三十圓九十錢初付나新田四百賣와李靑의三百五十의實彈賣로漸次下落되엇다가定岡三百場買閔二百買等과大引에南의二百買가잇서强堅히三十圓七十錢에大引된바買方은代引이四千餘이오大新의無活氣로多少間躊躇하며不安을感하갓고賣方은大新의反落을기다려賣浴할形勢로觀測되엇섯다

鍾新續落步調

米棉低와利喰押으로

算定을阪地四圓當地八圓을唱한鍾新은上足過急인氣先게發會한鍾新은上足過急인氣先米棉低와利喰押으로反落을告하던바今朝亦是阪止百十二圓臺로續落에當地는定岡市川의賣로小口防買에不拘하고百十四圓九十錢初付로續斷하야드듸어百十三圓九十錢大引으로暴落이나前途는一段高再現無疑이리라할이環境에비춰어妥當한觀測일듯

大新商內閑散

阪地反撥을期待

意氣沖天의勢로發會된大新은鍾新買大新賣人氣이든阪地情勢와鍾新의續落、鍾會念慮、今後留易掛念等으로阪電이無活氣임으로當地는買氣가못沮喪되어商內閑散는바今朝阪電은多少引返되어九十一圓五十錢初付九十二圓大引으로稍高를呈하얏스나當地는定岡百五十買와小口買에對한小口賣로三百五十의賣買가九十圓九十錢付止와八十錢一步로成立될뿐인바依然無活氣이엇다

仁新安取

는小口로小商內가잇섯슬뿐이엇는바仁新은保

京取取組激增

八日前場現在高京取配高는八千百四十이오로代引은四千六百八十에達하야京取戰은漸入佳境으로자못興味잇는相場이出現되겟는바買方大口는新田의千八百七十이오買方大口는定岡의四千百閔의千二百이엇다

▲仁新小低　十錢低로一步

後場諸株步調

▲京取	三〇九〇	—	八〇	—	三〇〇	—
▲仁新	三四六〇	—	五〇	—	二〇	—
▲安取	一二五〇	—	一二〇	—	二〇	—
▲鍾新	一一四九〇	—	三〇	—	四〇	—
▲大新	九〇九〇	—	八〇	—	九〇	—

後場大新昂騰

三十一圓十錢의新高價

大新一八〇高　仁新　一〇低
京取　保價　安取　一一〇低
鍾新　四〇高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大新三圓突破 阪電이續高에當地買氣再燃하야九十一圓八十錢初付後繼續寨突破로九十三圓十錢에强步이다가阪電後弱으로九十二圓七十錢에大引

▲鍾新小反高 阪電이小反에當地亦小反高로百十四圓에始하야二十錢으로三十錢에大引

▲京取頭重 三十圓八十錢初付로閑散觀望이다가大新高로續高되어三十一圓突破後更弱하야三十圓七十錢에大引

▲安取暴落 十二圓三十錢으로小低初付나安東中國側華商銀行支拂停止로問題가생기어當地도賣叩로十一圓五十錢으로四十錢에大引

▲安取는十二圓五十錢一步로三十錢低이다

鍾新買方追證

鍾新株의續落으로短期取引買方은八日後場立會外지에追證을納入하얏섯다

代引算定日步

株名	算定	代引	日步
京取	三一〇〇	四八八〇	一九
仁取	九〇〇	八〇	四
仁新	三五〇〇	六〇	一
鍾新	一二〇〇〇	一二〇〇	二五
安取	一三〇〇	六〇	五
大新	九一〇〇	三六二〇	四

短期賣買高（八日）

合計　三千五百三十枚
累計　八萬三千七百八十枚

大阪長期株式（八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紡	二二六〇	二二五〇	二二四〇	二二〇〇
同新	一六九〇	一七〇〇	一六八〇	一七〇〇
大株	一〇三〇	一〇三〇	一〇一〇	一〇三〇
同新	九二〇	九二〇	九一〇	九二〇
郵船	八〇〇	八〇〇	八〇〇	八〇〇
同新	四四〇	四四〇	四四〇	四四〇
商船	七〇〇	七〇〇	七〇〇	七〇〇
同新	三三〇	三三〇	三三〇	三三〇
日糖	一〇八〇	一〇八〇	一〇九〇	一〇九〇
東紡	一四〇	一四〇	一四〇	一四〇
大新中引	九二八〇	九四五〇		

大阪短期株式（八日）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新	一一三四〇	一一三四〇	一一三〇	一一四八〇
大株	九二五〇	九二〇〇	九一〇〇	九一三〇

京取長期賣買及標準價〔八日〕

株名		當限	先限	當限	先限	株名		當限	先限	當限	先限
京取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仁取	寄止	—	—	—	—	電興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朝郵	寄止	—	—	—	—
鮮銀	寄止	—	—	—	—	鮮鑛	寄止	3270	—	3600	—
同新	寄止	1600	—	1610	—	一新	寄止	—	—	—	—
殖銀	寄止	—	—	6100	—	二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1260	—	三新	寄止	—	—	—	—
商銀	寄止	—	—	—	—	四新	寄止	—	—	—	—
一新	寄止	—	—	—	—	京南	寄止	—	—	—	—
二新	寄止	—	—	—	—	金剛	寄止	—	—	—	—
漢銀	寄止	—	—	—	—	滿鐵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韓銀	寄止	—	—	—	—	東亞	寄止	—	—	—	—
東拓	寄止	—	—	—	—	勸信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朝信	寄止	—	—	—	—
鮮土	寄止	—	—	—	—	漢信	寄止	—	—	—	—
朝紡	寄止	1460	—	970	—	寧信	寄止	—	—	—	—
京電	寄止	—	—	—	—	安取	寄止	—	—	—	—

京取短期

株名	付値	止値
前場 京取	三〇九〇	三〇八〇
仁取	—	—
仁新	—	三四六〇
安取	—	一二三〇
鍾新	一一四九〇	一一三九〇
大新	九〇九〇	九〇九〇
後場 京取	三〇八〇	三〇七〇
仁取	—	—
仁新	—	三四五〇
安取	一二五〇	一二五〇
鍾新	一一四〇〇	一一四〇〇
大新	九一八〇	九二七〇

大阪大新步調（八日）

▲前場　九一五〇—六〇—五〇—一〇—九〇—八〇—九〇—二〇—一〇—九一〇〇—一〇—三〇—四〇
▲後場　九二二〇—三〇—一〇—一〇—二〇—九二七〇
（大引末着）

金融
朝鮮銀行券（八日）

發行高　二八、五六四、〇〇〇
正貨準備高　二〇、〇二一、〇〇〇
保正準備高　六八、五四三、〇〇〇

日本銀行券（六日）

發行高　一、三五三、六六二、〇〇〇
準備高　一、〇三九、〇三二、〇〇〇
限外　一三、二九九、〇〇〇
貸出高　三三三、五〇〇、〇〇〇

日本金利（七日）

	東京	大阪
無條件	一六〇	一八〇
翌日拂	一三〇	一四〇
普通物	一二〇	一三〇
六十日物	二二〇〇	二二〇

海外經濟（八日）

倫敦銀塊　三一片六分五
紐育銀塊　六七仙四分三
印棉　三十錢高
米棉　六十錢低
英米爲替　四弗七仙八分一
스띄ㄹ株　一一一弗八分五
아나콘다株　四六弗四分三
現物　九二、〇〇
先物　九二、〇〇

綿絲

大阪三品（八日）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一月限	三七五〇	三七五〇	三七四〇	三七四〇
二月限	三六七〇	三六七〇	三六四〇	三六四〇
三月限	三六九〇	三六八〇	三六一〇	三六一〇
四月限	三五三〇	三五四〇	三五三〇	三五三〇
五月限	三五〇〇	三五一〇	三五〇〇	三五〇〇
六月限	三五〇〇	三五〇〇	三五〇〇	三五〇〇
七月限	三五〇〇	三五〇〇	三四九〇	三四九〇

穀物

釜山

實買高　五千石
穀良　三六、〇四　神力　三六、二〇
大豆　一月末三五、六四　一月中三五、四〇　二月末三五、〇四　二月中三五、八〇

群山

實買高　一萬五千五百石
全羅三等　三五、六〇　同四等三五、〇〇
一月中　三六、六〇　一月末　三六、六〇
二月中　三六、四〇　二月末　三六、四〇

大邱

實買高　一萬一千石
穀良　三六、〇〇　神力　三六、〇〇
一月末　三六、〇〇　二月中　三六、〇〇　二月末　三六、〇〇

一回	—	三六、〇〇
二回	—	三六、〇〇
三回	—	三六、〇〇
四回	—	三六、〇〇

京城物價　一月八日

薪炭類
單位　錢

▲石炭部　一噸에對하야
本九州炭　二、五〇　撫順塊炭　三三、〇〇
一千二百個　一、三〇　▲晉鑛無煙炭　二三、〇〇
三孔炭　一、五〇　三孔炭　二、〇〇
▲薪炭部　▲安州白炭　一、五〇
（協信商會調查）

ホシ(호시)胃腸藥은 成功者를 産함

一 무진무진不景氣가될것임니다 일합시다、일합시다일하는者에게는不景氣가 업습니다。

二 健康은資本임니다。先天的資本에賴托하십시오。

三 健康은健全한胃腸에잇슴니다。그것은호시胃腸藥이주는것임니다。

四 호시胃腸藥은不景氣와싸와서勝利를엇는絶大한精力을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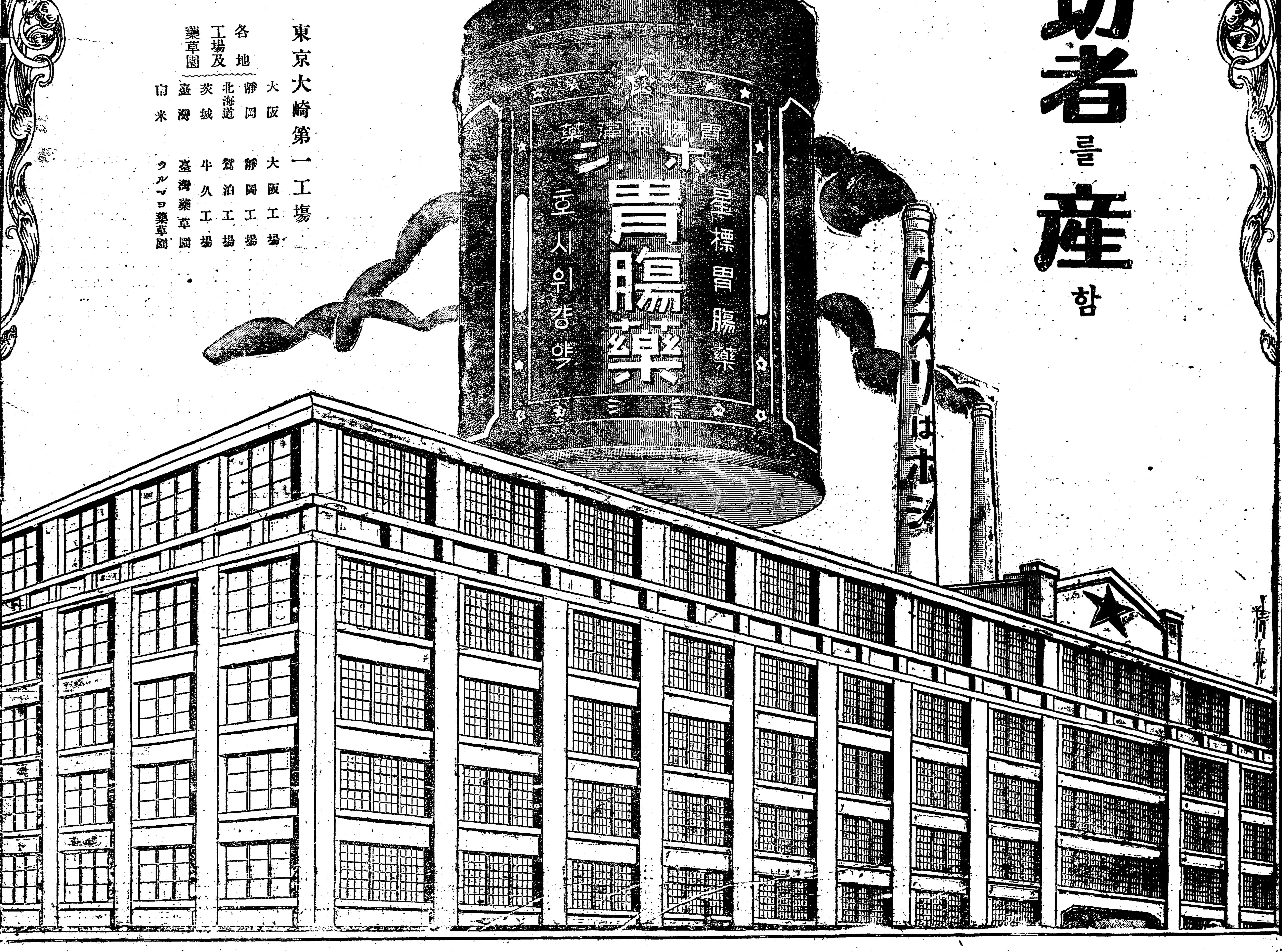
五 不景氣中의成功者는、오즉호시胃腸藥의愛用者만에게許함。明日로미루지말고至今곳이것을求하야成功者의列에드십시오。

이러할때 호시胃腸藥을

◇消化不良의時 ◇食慾不振의時
◇過飮過食의時 ◇腹痛吐瀉의時
◇宿醉胸痞의時 ◇溜飮이出할時
◇胃腸가다루의時 ◇胃擴張의時

星製藥株式會社

〔資本金五千萬圓〕

東京大崎第一工場

各地工場及藥草園
大阪 大阪工場
靜岡 靜岡工場
北海道 鷲泊工場
茨城 牛久工場
臺灣 臺灣藥草園
南米 ウルマヨ藥草園